

「晦齋」의 《中庸九經衍義》의 政治思想研究

Study of political thought Hoejaes Chungyong Kugyong Yonui

琴 鍾 友
琴 土 樹

《目 次》

I 序 論	1 總論爲治之道
II 《中庸九經衍義》의 構成	2 天下國家를 다스리는 根本인 修身 에 관한 總論(總論修身之道)(修身一)
1 《中庸九經衍義》의 著述	
2 著述의 動機 또는 目的	IV 結 論
III 政治하는 道와 天下國家를 다스리는 根本인 修身	

I. 序 論

晦齋 李彦迪先生(1491~1553)은 朝鮮朝의 大學者이며 政治家였다. 先生의 時代는 新興士林의 繼續的 進出이 있었다. 士林은 學問과 德行을 닦아 新進官僚로서 活動하는 良心的 學者·知識人들이다. 이들은 道德과 節概를 崇尚하고 名分과 傳統을 尊重하였다 이 士林은 前世紀末부터 이미 擡頭해왔거니와 道學政治를 推進하는 過程에서 여러 번 挫折과 慘禍를 입었다. 先生이 8歲되던 해에 戊午土禍, 14歲의 해에는 甲子土禍가 일어났으나 幼年時節의 일이었고 29歲때에 己卯土禍가 일어났으나 별일은 없었다 그러나 先生이 學者로서 官人·政治家로서 名望과 地位가 높아진 55歲때에 己巳土禍를 당하여 57歲되던 明宗2年丁未(1547年)閏九月에 江界府에 安置되었다. 江界謫所에서 憂國의 表情을 著述에 담았으니 先生은 道學에 奮發하여 德이 行實에 符合하였고 말이 後世에 傳하였다.

이 論文은 「晦齋先生의 政治思想研究」¹⁾에 이어 《中庸九經衍義》의 思想內容을 研究하고자 한다 이 論文에서는 「總論修身之道」까지를 研究範圍로 한다

1) 琴鍾友, 〈晦齋先生의 政治思想研究〉《韓國의 哲學》(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1988) p 33

II 《中庸九經衍義》의 構成

1 《中庸九經衍義》의 著述

前述한바와 같이 先生이 57歳の 丁末年(明宗二年, 1547年) 閏九月에 江界府에 安置되었는데 謫命을 듣고 온 집안이 다 號泣하였으나 先生은 飲食言笑함이 平時와 다름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大夫人을 잘 毐서 奉養하기를 부탁하였다 皇天이 위에 있으니 얼마 안 가서 돌아올 것 이라 하였다 先生이 謫所에 가신 이듬해 戊申年에 大夫人께서 別世하시니 이것이 先生의 終天之痛이 되었으며 남긴 衣服으로 神位를 베풀어놓고 朝夕으로 통곡하면서 3年喪을 마쳤다. 先生은 困境과 憂患에 處하여 스스로 安定함이 있었으므로 學問에 나아가 著述하여 그 功을 그치지 아니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終日乾乾夕惕若하였다 그 凡의 案上에는 스스로 경계하는 말을 쓰니 내 날마다 내 몸을 三省하나니 하늘을 섬김에 未盡한 바가 있는가. 임금과 아버지를 爲함에 誠實하지 못한가.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한가하였다 이와같이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평생 닦아온 學問을 조용히 간추려 大學章句補遺·續或問·奉先雜儀·求仁錄·進修八規를 저술하고 中庸九經衍義는 著述을 完成치 못하고 癸丑年(明宗八年, 1553年) 11月 23日己丑에 63歲로 他界하였다. 退溪先生은 〈晦齋李先生行狀〉에서 「……先生의 纂修한 諸書와 ……收集한 先生의 詩·文·誌·銘과 官職을 歷任한 首末, 言行事實등을 보임에 愧은 삼가히 받아서 읽고 反覆參究하여 옛날 聖賢의 말로써 그 當否를 質正해보고 이에 비로소 先生이 道學에 있어서 이같이 힘차고 그 얻음이 이같이 바르고 모든 先生의 出處大範과 忠孝가 一致함도 다 根本한 바가 있었음을 알게되었다.」고 하고 「先生은 謫所에서 《大學章句補遺》, 《續或問》, 《求仁錄》을 짓고 또 《中庸九經衍義》를 지었으니 衍義는 成書하지는 못하였으나 힘은 더욱 많이 들었다. 이 三書는 可히 先生의 學問을 볼 수 있다.²⁾」고 하였다 《中庸九經衍義》의 編次는 序文, 目錄 그리고 修身, 尊賢, 親親의 三編이 있고 跋文이 있다. 跋文은 名相西涯柳成龍이 萬曆11年正月上辭에 지었으니 晦齋先生이 他界한 明宗八年癸丑(1553年)으로부터 30年뒤의 일이다 目錄에는 總論爲治之道, 修身, 尊賢, 親親, 敬大臣, 子庶民, 來百工으로 되어있으나 未完成으로 修身, 尊賢, 親親의 三編7卷과 中庸九經衍義別集12卷인데 그 內容은 體天道, 畏天命, 戒滿盈의 三編이다

2 著述의 動機 또는 目的

위와같이 構成된 《中庸九經衍義》의 著述의 動機나 目的을 序文이나 跋文에서 그 大體를 찾아보고자 한다.

2) 愧遭受而伏讀之反覆參究質之以古聖賢之言於是始知先生之於道學其求之如此其切也 其行之如此其力也其得之如此其正也而凡先生之出處大節忠孝一致皆有所本也 先生在謫所作大學章句補遺續或問求仁錄久修中庸九經衍義 衍義未及成書而用力 尤深此三書者可以見先生之學 (晦齋 李先生行狀)

序文에 의하면 《中庸》에 「孔子가 魯나라 哀公에게 「爲政之道」를 告하면서 마침내 天下國家를 다스리는 條目에까지 미치게 되었으니 이른바 九經이 이것이다. 그 차례는 修身이 먼저있고 尊賢, 親親이 다음이고 또 敬大臣, 體群臣, 子庶民, 來百工이 다음이고 懷諸侯에까지 이르렀다. 根本에서 말미암아 末에 미치고 가까운데를 말미암아 먼데에 미치어 대개 大學의 八條目과 서로 表裏가 되어 帝王의 政治하는 規模는 갖추어졌다」³⁾ 고 하고 이 大學衍義와 大學衍義補의 精要를 採擇하여 經世의 法을 갖추어서 聖明에 드리고저 하는 것」⁴⁾ 이라고 하고 「帝王의 存心 出治의 道와 常德配天의 要에는 반드시 조그마한 도움이 될 것이며」 眞德秀, 丘濬의 《大學衍義》와 《大學衍義補》二書를 「參玩講明하고 臣의 衍義한 것을 아울러 取하여 潛心玩味하여서 마음에 근본하여 政化에 施行하고 하늘을 法하여 間斷함이 없으면 帝王이 天道를 계승하여 세우는 표준이 되는 道(繼天立極의 道)가 盡善全美하게 될 것이며 堯舜三王의 盛大한 政治를 다시 오늘에 볼 수 있다」⁵⁾ 고 하여 帝王의 存心出治의 道와 常德配天의 要에 반드시 도움이 되게 하고 《大學衍義》와 《大學衍義補》의 智者의 千慮一欠을 집고(補)二書를 모방하고 또 이 二書와 더불어 孔子가 哀公에게 일러준 「九經」에 衍義하고저 한것이 著述의 動機 또는 目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先儒眞德秀의 《大學衍義》는 治道의 要를 闡明하였으나 治國平天下의 二條目은 남겼으며 近世丘濬이 大學衍義의 闕略을 집어(補)서 經世의 務를 갖추게 하였으나 配天·敬天說에는 言及치 않았으니 이것은 智者의 千慮一欠이며 後人에 期待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二書의 例를 모방하고 先聖의 가르침(訓)에 근본하고 諸賢의 理論과 諸史百氏의 說을 參작하여 先生의 견해를 덧붙여 그 條目에 따라 그 뜻을 推廣하고 이것을 「九經衍義」라고 이름한다」는 것이다. 「그 講學明理 誠意正心으로써 修身의 條目を 삼은 것은 中庸의 뜻을 근본으로 하고 大學의 進德修身의 道가 반드시 이로 말미암아 나아감을 밝힌 것이요 그 體天道 畏天命을 九經뒤에 붙인 것은 中庸의 「行之者一」라는 뜻에 근본하여 帝王의 修天職保天位하는 道가 이에 있음을 밝힌 것이며 그 戒滿盈으로써 끝맺는 것은 이 또한天命을 敬畏하는 일로서 政治가 安定되고 功業이 이루어진 뒤에도 더욱 이로써 儆戒하지않을 수 없는 것」⁶⁾ 이라고 하고있다 《中庸九經衍義》의 跋文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처음에 내가 眞西山의 大學衍義의 책을 만질때마다 天下國家를 다스리는 道가 여기 다 갖추어져 있도다! 고 嘆하였더니…… 이제 晦齋先生의 九經衍義를 읽고 眞西山以後로는 겨우 이 글을 볼 수 있는데 그 世上을 근심하고 또 나라사랑하는 마음은 深切한 것이었다. 가만히 생각컨대……道喪文弊한 뒤에 스스로 분기하여 그 擇理는 精粹하고 그 存心은 誠實하여 朝廷에 서서 임금을 섬길 적에는 한결같이 堯舜三

3) 「中庸孔子告魯哀公以爲政之道而遂及於爲天下國家之目所謂九經是也. 其序首之以修身而次以尊賢親親又次之以敬大臣體群臣子庶民來百工以至於柔遠人懷諸侯由本而及於末由近而及於遠蓋與大學之八條目相爲表裏帝王爲治之規模備矣(『中庸九經衍義 序』《中庸九經衍義》卷之一)」

4) 「欲推明先聖垂訓之奧旨兼採二書之精要 以備經世之法而爲聖明之獻也(『中庸九經衍義序』《中庸九經衍義》卷之一)」

5) 帝王存心出治之道常德配天之要未必無補備於宮庭燕閑之地既取二子之書參玩而講明之兼取微臣之所衍潛心而深味之本之心以施於政化法乎天而無所間斷則帝王繼天立極之道盡善全美而堯舜三王之盛可以復見於今日矣(同序)

6) 其以講學明理誠意正心爲修身之目者所以本中庸之旨而取大學進修之目以明修身之道必由此而進也其以體天道畏天命繼之於九經之後者所以本中庸行之者一之意而明帝王修天職保天位之道在於此也其而戒滿盈終之者是亦畏天命之事而治定功成之後尤不可不以此爲戒也(『中庸九經衍義序』)

代로써 期約하여 凜凜한 王者의 輔佐였다. 세상의 밝은 때를 만나서 벼슬이 在贊成에까지 이르렀으니 또한 때를 만나지 못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先生은 道는 일찌기 하루라도 朝廷에서 施行되지 못하였다. 그 晩年에 와서는 權臣과 奸臣이 妨害하여 讒訴가 많았으니 老境에 西쪽으로 귀양갔다. 常人으로 말한다면 意氣가 꺾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담담히 세상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생각이 없을 터인데 先生은 또 樂天知命하는 여가에 經傳을 考究하여 治道를 發揮함으로써 臣子の 간절한 뜻을 나타냈으니 그 忠誠은 盛한 것'이라고 하고 이어서:

「대저 眞西山의 書는 退休時에 田里에서 이루어졌으나 先生의 書는 귀양가서 거의 죽을뻔한 가운데 著述하였으니 先生이 더욱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앞에 말한 세상을 근심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深切하다고 한것이 그른 말인가.」⁷⁾고 하여 이 《中庸九經衍義》가 眞西山의 《大學衍義》와 더불어 비교할 수 있는 天下國家를 다스리는 道가 다 갖추어 있는데 眞西山의 書는 退休時에 田里에서 이루어졌으나 先生의 書는 謫所에 죽을뻔한 가운데 著述하였으니 세상을 근심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深切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書는 모두 27篇으로써 〈修身〉, 「尊賢」, 〈親親〉을 論한것이 15篇이고 〈體天道〉〈畏天命〉「戒滿盈」이 12篇이고 敬大臣以下는 미처 論著치 못하고 先生이 他界하였으니 드디어 遺恨이 되었다. 그러나 일찌기 그 書에 대하여 論한다면 道가 위에 서고 皇極이 세워지고 賢才가 登庸되어 모든 일이 整理되고 九族이 郭叙하고 百姓이 平章되는 것이니 이것은 九經의 綱領인데 先生이 이미 말한 것이고 別錄에 기재한 바는 天命幾微의 즈음에 反覆累言하여 成業을 保守하는 根本으로 삼았는데 그 점에 더욱 鄭重하면서도 매우 詳細히 말하였다. 君主는 진실로 能히 이에 體驗하여 스스로 理解한다면 그 말하지 않는 것도 마땅히 條理가 통달할 것이니 先生이 萬世를 위하여 太平을 열어 놓은 것을 다른 곳에 求하지 않고도 여기서 얻게 될 것이다.⁸⁾」고 하였다. 곧 이 著述이 〈修身〉〈尊賢〉〈親親〉三篇과 〈體天道〉〈畏天命〉〈戒滿盈〉으로 未完成에 그쳤지만 道가 위에 서서 皇極이 세워지고 賢才가 登庸됨으로써 모든 일이 整理되고 九族이 郭叙되어 百姓이 平章되는 九經의 綱領을 밝힌 것이며 別錄의 기재된 바는 成業을 保守하는 根本으로 先生의 萬世를 위하여 太平을 열어 놓은것을 다른 곳에 求하지 않고 여기에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跋文에서는 《大學》과 《中庸九經衍義》에 天下國家를 다스리는 道가 크게 具備되어 있다는 것을 되풀이 強調하고 있다. 跋文의 끝 部分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 옛 부터 聖賢이 治道를 말한것은 大學보다 詳細한 것이 없었고 九經보다 要緊한 것이 없었는데 眞西山은 그 전에 《大學衍義》를 지었고 先生은 뒤에 와서 《九經衍義》를 지었으므로

7) 夫以西山之書成於田里退休之日而先生之書作於 擯黜垂死之中故余以先生爲尤難也然則向所謂憂也愛君之心益深且切者非耶 (同跋)

8) 書凡二十七篇論修身尊賢親親者十五體天道畏天命戒滿盈者十二自敬大臣以下未及論著而先生易簣遂爲千古之遺恨然實即其書而論之則道立於上而皇極以建賢才登庸而序續允釐九族敦叙而百姓平章此九經之綱領而先生已言之至於別錄所載及反覆乎天命幾微之際以爲持盈中成之本者尤尊鄭重而極致詳焉人君苟能體驗於此而神會之則其不言者自常條暢川達而先生之所以爲萬世開太平者有不待他求而得之矣 (《中庸九經衍義》跋)

天下國家를 다스리는 道가 크게 갖추어져 남김없이發揮되었다」⁹⁾는 것이다.

위와 같이 序文과 跋文을 考察하면서 《中庸九經衍義》의 構成과 著述의 動機 또는 目的을 分析考察하였다

III. 政治하는 道와 天下國家를 다스리는 根本인 修身

1 總論爲治之道

《中庸》에 孔子가 魯哀公에게 政治하는 道를 告하면서 드디어 天下國家를 다스리는데까지 말하였는데 이른바 「九經」이 이것이다. 《中庸九經衍義》는 위의 「九經」을 衍義한 것이다 먼저 孔子가 政治하는 道를 告하는 것을 告察하고자 한다. 哀公이 問政한데, 孔子께서 대답하셨다. 文王, 武王의 政治는 文獻에 잘 記錄되어 있다. 그 사람(어질고 德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政治(옳은 政治, 善政)가 행하여지고 그 사람(其人)이 없으면 그 政治(其政)가 그치며 없어진다.

人道는 政治에 민첩하고 地道는 심는 나무에 민첩하니 대저 政治라는 것은 마치 蒲蘆와 같은 것이다.

때문에 政治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으니 사람을 取하되 몸으로 하고 修身하되 道로써 하고 修道하되 仁으로써 할지니라. 仁이라는 것은 사람이니 여기 사람이란 仁이라는 生의 理를 內在하고 있어 그 당연한 歸結로서 惻怛慈愛의 情을 가지고 있는 人間을 가르켜 말한 것인데 親親 곧 아버지, 兄弟, 親戚을 親함이 큰것이 되고 義란 마땅한 것이니 尊賢이 큰것이 되니 親親의 등급과 尊賢의 차등이 禮가 생기는 바이니라.

下位에 있어서 옷사람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君子는 修身치 않을 수 없으니 修身을 생각할진데 아버지를 섬기지 아니치 못할 것이요 아버지 섬김을 생각할진데 사람을 알지 아니치 못할 것이니라

天下에 達道(時間적으로 古今어는 時代에 있어서나 空間적으로 天下 어느 곳에 있어서나 人間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行하는 바의 道) 다섯에 그것을 行하게 하는 것이 셋이니 君臣과 父子와 夫婦와 昆弟와 朋友를 사귀는 다섯가지는 天下의 통달한 道요 知, 仁, 勇, (다섯가지 達道를 認識하는 그것이 知이고, 이 다섯가지 達道를 體得發揮하는 곧 行하는 그것이 仁이요, 이 다섯가지 達道의 認識과 實踐을 強하게 하는 것이 勇이다) 세가지는 天下에 通達한 德이니 行하게 하는 것은 하나 곧 誠이니라

어떤 이는 나면서 이 達道를 알고 어떤 이는 배워서 알고 어떤 이는 애써서 아는 것이니 그 아는 데 미쳐서는 한 가지이다(生知, 學知, 困知가 아는데 미쳐서는 同一한 認識이다.) 어떤

9) 嗚呼自古聖賢言治道者莫詳於 大學莫要於九經西山衍之於前先生 之於後而治天下國家之道大備而無餘蘊矣(上同跋)

이는 편안히 行하며 어떤 이는 利로써 行하며 (五達道를 行하는 것이 利 곧 좋은 일 바른 일이라는 것을 알고 비로소 실천하는 사람) 어떤 이는 힘써 억지로 行하기도 하나니 그 成功하는데 미처서는 한 가지이다 (安行, 利行, 勉強行이 成功하는데 이르러서는 同一한 것이다)

孔子가 말씀하시기를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知에 가깝고 힘써 행하는 것은 仁에 가깝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勇에 가까우니라 (위의 三知는 知라고 하고 三行은 仁이라고 하공 三近은 智로 삼고 三行은 仁으로 삼고 힘쓰고 그치지 않아서 이것을 알고 功을 이루어 「一」에 이르는 것은 勇으로 삼는다고 한다 그리고 生知安行을 아는 것을 주장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을 智라 하고 學知利行은 행동을 주장으로 한다고 해서 仁이라 하고 困知勉行은 강한것을 주장으로 한다고 해서 勇이라고 한다.)

이 세가지 (好學, 力行, 知恥)를 알면 몸 닦을 바 (方法)을 알 것이요, 몸 닦을 바를 알면, 사람(他人) 다스릴 바를 알 것이요, 사람 다스릴 바를 알게 되면 天下國家 다스릴 바를 알 것이다.¹⁰⁾

以上이 《中庸》「哀公問政」에 대한 孔子가 政治하는 道를 告한것인데 여기서 政治의 根本이 修身에 있고 修身은 仁, 義에 기초하여 展開시키고 있는 바 《大學》의 修身齊家治國平天下와 關聯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하여 「九經」에 이어진다. 九經이란 아홉가지 不變의 原則이다. 晦齋先生은 爲治之道の 總論으로 《中庸》에서 引用하고 先儒呂大臨, 朱子學說을 덧붙이고 있다 《中庸》에는 「凡爲天下國家有 九經하니 曰修身也와 尊賢也와 親親也와 敬大臣也와 體群臣也와 子庶民也와 來百工也와 柔遠人也와 懷諸侯也」나라고 하였다 이어서 九經의 效果를 말한것을 《中庸》에서 引用하여 衍義하고 있는바 《中庸》에는 :

「修身則道立하고 尊賢則不惑하고 親親 則諸父昆弟 不怨하고 敬大臣則不眩하고 體群臣則士之報禮 重하고 子庶民則百姓이 勸하고 來百工則財用이 足하고 柔遠人則四方이 歸之하고 懷諸侯則天下 畏之나라」¹¹⁾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先儒呂大臨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天下國家의 根本은 몸에 있기 때문에 修身이 九經의 根本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師友를 親해야만 修身하는 道가 向上되는 까닭으로 尊賢이 그 다음이 되었으며 道の 向上은 그 집(家)보다 먼저 할것이 없기 때문에 親親이 그 다음이 되었으며 집(家)에서 朝廷으로 미치게 되었기 때문에 大臣을 공경하고 體群臣이 그 다음이 되었으며 朝廷에서 그 나라에 미치게 되

10) 哀公이 問政한데, 孔曰 文武之政이 布在方策하니 其人이 存則其政이 舉하고 其人이 亡則其政이 息이니이다 人道는 敏政하고 地道는 敏樹하니 夫政也者는 蒲盧也 一나라 故로 爲政이 在人하니 取人以身이오 修身以道이오 修道以仁이니라 仁者는 人也 一니 親親이 爲大하고 義者는 宜也 一니 尊賢이 爲大하니 親親之殺와 尊賢之等이 禮所生也 一니라 在下位하야 不獲乎上이면 民不可得而治矣리라 故로 君子 一不可以不修身이니 思修身인댄 不可以不事親이오 思事親인댄 不可以不知人이오 思知人인댄 不可以不知天이니라 天下之達道 一五에 所以 行之者는 三이니 曰君臣也 父子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之交也 五者는 天下之達道也 一오 知·仁·勇 三者는 天下之達 德也 一니 所以 行之者는 一也 一니라 或 生而知之하며 或學而知之하며 或困而知之하니 及其知之하야는 一也 一니라 或安而行之하며 或利而行之하며 或勉強而行之하니 及其成功하야는 一也 一니라 孔曰好學은 近乎知하고 力行은 近乎仁하고 知恥는 近乎勇이니라 知斯三者 則知所以修身이오 知所以修身則知所以治人이오 知所以治人則知所以治天下國家矣이니라 《中庸諺解》庚辰新利內閣藏板에 의함)

11) 《中庸諺解》庚辰新利內閣藏板에 의함

기 때문에 庶民을 子息같이 사랑하고 百工을 보게 함이 그 다음이 되었으며 그 나라에서 天下에 미치게 되기 때문에 遠人을 편안하게 하고 諸侯를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는 것이 그 다음이 되었으니 이것이 九經의 차례이다. 群臣을 내 四體처럼 보고(대우하고) 百姓을 내 子息처럼 보는 것(대우하는 것)은 이것이 臣下대하는 것과 百姓대하는 것의 다름이다.¹²⁾고 한다.

朱子是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道を 세운다는 것은 道가 自己몸에서 完成되어 백성에게 儀表가 되는 것을 이름이니 이른바 君主가 그 표준을 세운다는 것이다. 疑惑되지 않는다는 것은 道理에 疑惑되지 않음을 이름이다. 眩惑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에 迷惑되지 않음을 이름이니 大臣을 공경하면 信任이 專一하여 小人이 離間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에 다달아 眩惑되지 않는 것이다. 百工을 오게 하면 通功易事(分業의 성과를 相通하여 利用하고 남이 못하는 일은 내가 대신해주고 한편 내가 못하는 일은 남이 대신해 주는 것)하고 農民과 商賈가 相資하는 까닭으로 財用이 넉넉해지고 遠人을 편안하게 하면 天下의 나그네가 모두 기뻐하여 그 나라의 거리에 나서기를 願하는 까닭으로 四方의 人心이 돌아오고 諸侯를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면 諸侯가 悅服하여 天子의 德이 베풀어진 바가 넓고 威嚴을 부릴 바가 넓기 때문에 天下가 그와 같은 天子를 畏敬한다고 하니 이는 九經의 效果를 말한 것이다.¹³⁾고 한다.

이어서 先生은 《中庸》九經의 內容을 論한 바를 引用하여 衍義하고 있다. 《中庸》에 「思慮를 간주렴하게하고 그 마음을 밝고 깨끗이하고 (안으로 精神을 統一하고) 밖으로 正式禮裝하여 禮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것은 修身하는 것이요, 참소를 버리고 여색을 멀리하며 財貨를 賤하게 여기고 德行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賢者를 勸獎함이요, (참언을 믿으면 賢者에 대한 信任이 專一되지않고 여색을 멀리하지않고 재물을 탐하면 賢者를 좋아하는것이 그만큼 얹어진다. 賢者를 존중하면 賢者는 善을 힘쓴다) 그 位를 높혀주고 그 祿을 厚하게하며 그 好惡을 같이 하는 것은 親親을 勸獎함이요 官屬을 많이두어 使令을 맡기는 것은 大臣을 勸獎함이요, 忠信으로 대하고 祿俸을 厚하게 하는 것은 士를 勸獎함이요 時期에 맞추어 使役하고 賦歛을 輕減하는 것은 百姓을 勸勉함이요, 날마다 살피고 달마다 시험하여 既稟을 일에 맞게 하는 것은 百工을 勸勉함이요 가는 者를 전송하고 오는 者를 맞이하고 잘한 者를 嘉尚히 여기고 잘못된 者를 矜恤하는 것은 柔遠人하는 것이다. 끊어진 대를 이어주며 폐한 나라를 興起시키며 어지러운 것을 다스리고 위대한 것을 扶持시키며 朝聘을 時期에 맞게 하도록 하며 가져가는 것은 후하게 하고 가져오는 것은 薄하게하는 것은 諸侯를 悅服케 하려는 것이다. 무릇 天下國家를 다

12) 先儒呂大臨曰天下國家之本在身故修身爲九經之本然必親師取友然後修身之道進故尊賢次之道之所進莫先其家故親親次之由家以及朝廷故敬大臣體群臣次之由朝廷以及其國故子庶民百工次之由其國以及天下故柔遠人懷諸侯次之此九經之序也 視群臣猶五體視百姓猶吾子此視臣視民之別也 《中庸九經衍義》卷之一)

13) 朱子 曰道立謂道成於己而可爲民表所爲皇建其極也不惑謂不疑於理不眩謂不迷於事敬大臣則信任專而小臣不得以間之故臨事而不眩也來百工則通功易事農末相資故財用足柔遠人則天下之旅皆悅而顯出於其塗故四方歸懷諸侯則德之所施者博而威之所制者廣矣故曰天下畏之此言九經之效也 (上同)

스리는 데는 九經이 있으니 그것을 行하는 것은 하나이다. (곧 誠이 이것이다.)」¹⁴⁾

이에 대한 朱子 說을 引用하여 衍義하고 있는바 朱子는 말하기를 「官盛任使」란 官屬을 많이 두어 使令을 맡기는 것이니 대개 大臣은 繁細한 事務를 친히 보살필 수 없는 까닭으로 優待함이 이와같다.」고 하였다.

이어서 「忠信重祿이란 待遇하기를 誠心으로 하고 扶養하기를 厚하게 함을 이름이니 대개 몸소 體恤하여 그들이 외사람에 依賴함을 이는 것이 이와같다. 既稟은 稍食이며 靜事란 周禮棄人職에 그 弓弩를 상고하여 그 食을 올리고 내리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가면 符節을 주어 보내고 오면 그 委積을 풍족히 하여 迎接하였다. ……어떤 이가 묻기를 九經의 說은 어떠한 것인가 하거늘 朱子는 대답하기를 그 안(內)을 專一하지 않으면 그 밖(外)을 制御할 수 없으며 그 外를 整齊하지 않으면 그 中을 涵養할 수 없는 것이다. 靜할 적에 存養하지 않으면 그 근본을 세울 수 없으며 動할 적에 省察하지 않으면 그 私慾을 克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齊明 盛服하여 非禮면 不動한즉 內와 外가 서로 修養이 되고 動과 靜이 어긋나지 않게 되니 修身의 要가 된다. 讒邪를 믿으면 賢者를 信任하는 것이 專一하지 못하고 財貨와 女色을 따르면 賢者를 좋아함이 篤實하지 못할 것이니 賈捐之의 이른바 後宮에 女色이 盛하면 賢者가 隱居하고 佞人(구변이 좋아 아침 잘하는 사람)이 用事하면 諫臣이 緘口한다는 것이다. 대개 저울(衡)을 잡은 형세로서 이 쪽이 무거우면 저 쪽이 가벼운 것은 이치가 진실로 그런 것이다.」¹⁵⁾ 그러므로 「讒邪를 除去하고 女色을 멀리하며 財貨를 賤하게 여기고 한결같이 德行을 貴重하게 생각하는 것이 勸賢의 道가 된다. 親하면 그 사람을 貴하도록 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富하도록 하니 兄弟, 姻戚들을 서로 疏遠함이 없게한다. 그 때문에 位를 높여주고 祿을 厚하게 하며 그 好惡를 같이 하는 것은 親親의 道를 勸獎함이 되는 것이다. 大臣이 직접 작은일(細事)을 보살피지 아니하면 道理로써 임금을 섬기는 者는 스스로 道를 다할 수 있게 되니 그 때문에 官屬이 衆盛하여 使令을 맡기는 것이 大臣을 勸獎하는 道이다. 그 정성(誠)을 다하여 그 私情을 救恤하면 士가 父母를 섬기고 妻子를 기르는 累가 없게 되므로 事功에 즐거이 힘쓸 수 있게 되니 그 때문에 忠信으로 대하고 俸祿을 厚히 주는 것은 士를 勸勉하는 道이다 人情은 편안하고저 하지 않는 이가 없고 또 富裕하게 되고저 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그 때문에 때(時)에 맞게 使役하고 賦斂을 경감해주는 것은 百姓의 勸勉하는 道이다 날마다 살피고 달마다 試驗하여 그 才能을 考課하고 餼廩을 일에 맞게하여 그 事項을 報償한다면 法度を 믿지않고 姦巧를 하는 者는 容納될 수 없으므로 怠惰한 者도 힘쓰게 되고 才能있는 者도 勸勉하게 된다. 符節을 주어 그 가는 者를 餞送하고 委積으로써 대접하여 오는 者를 맞이하고 才能에 따라 任職을

14) 齊明盛服하야 非禮不動은 所以修身也 | 오 去讒遠色하며 賤貨而貴德은 所以勸賢也 | 오 尊其位하야 重其祿하며 同其好惡는 所以勸親親也 | 오 官盛任使는 所以勸大臣也 | 오 忠信重祿은 所以勸士也 | 오 時使薄斂은 所以勸百姓也 | 오 日省月試하야 既稟稱事는 所以勸百工也 | 오 送往迎來하야 嘉善而矜不能은 所以遠柔人也 | 오 繼絕世하며 舉廢國하며 治亂持危하야 朝聘以時하야 厚往以薄來는 所以懷諸侯也 | 니라 《中庸九經衍義》卷之一 및 《中庸諺解》

15) 或問九經之說奈何朱子曰不一其內則無以制其外不齊其外則無以養其中靜而不存則無以立其本動而不察則無以勝其私故齊明盛服非禮不動則內外交養而動靜不違所以爲修身之要也信讒邪則任賢不專徇貨色則好賢不薦賈捐之所謂後宮盛色則賢者隱處佞人用事則諍臣杜口蓋持衡之勢此重則彼輕理固然也 《中庸九經衍義》卷之一, 總論爲治之道條

주어 그 잘한 者를 嘉尚히 여기고 그 하고저 하지 않는 者를 強制하지 아니하며 그 能하지 못한 者를 矜恤히 여긴다면 天下의 나그네가 다 기뻐하여 그 나라의 거리에 나오기를 願할 것이다. 無後者는 이어주고 (周武王이 夏王朝의 後孫을 이어준 것과 같이) 滅亡한 者는 封해 주며 (齊桓公이 衛國을 封한 것과 같이) 그 어지러운 것은 다스려 上下가 서로 편안케하고 그 危殆한 것은 扶持시켜 大小가 서로 救恤케하며 朝聘이 時期가 있어 그 힘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 貢賜가 限度가 있어 財物을 窮乏케 하지 않는다면 天下 諸侯가 모두 그 힘을 다하여 王室을 蕃衛하고 倍畔할 마음이 없다.¹⁶⁾는 것이다

朱子是 「이 九經은 일은 같지 않으나 그 實을 總合하면 修身, 尊賢, 親親에 벗어나지 않는 다」는 것이며 「敬大臣 體群臣은 尊賢의 差等에서 推及된 것이요 子庶民來百工柔遠人懷諸侯는 親親의 殺에서 推及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尊賢하고 親親하는 所以에 있어서도 또한 修身이 지극하여야만 各各 그 이치에 合당하여 어긋남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親親을 하면서 일을 맡긴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어떤 理由인가」하거늘 대답하기를 「이것은 親親과 尊賢을 아울러 行하여도 어긋나지 않는 道이다. 다만 親親한 까닭으로써 賢한가 賢하지 않는가를 묻지도 않고 경솔히 일을 맡겼다가 不幸히 혹시 任務를 감내하지 못하게 될 때 罪를 다스린다면 傷恩하고 罪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法을 廢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써 富하게는 하면서도 일을 맡긴다고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家族을 親愛하여 保全하는 所以이다. 만약 親戚이면서 賢明하다면 마땅히 大臣의 벼슬에 앉히고 尊重할 것이지 어찌 다만 富貴만 시킬뿐이리요.」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大臣을 信任하여 離間시킬 수 없게 한 까닭으로 일에 臨하여 眩惑되지 않게 되니 大臣이 賢者라면 可하거니와 惑 不幸히 趙高, 朱異, 虞世基, 李林甫의 무리가 있게 된다면 離陽의 所謂一偏의 말만듣고 姦邪를 발생케하고 한 사람에게 맡기면 亂을 이루게 된다는 것과 范曄의 所謂 賢者를 猜忌하고 有能한 사람을 미워하며 아래 사람을 制御하고 윗사람을 雍蔽하여 그 私事로운 勢力을 이루워도 君主는 覺悟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어찌 念慮하지 않으리요」하거늘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저들이 이에 이르게 된 것은 九經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서 그렇게 된 것이니 그들이 이 뜻을 밝게 알아서 修身으로서 근본을 삼으면 진실로 視 聽이 聰明하게 됨으로 賢否로써 속일 수 없다. 대저 賢者를 求하는데는 수고로워도 適任者를 얻으면 편안하고 맡기면 疑心하지 않으며 疑心하면 맡기지 않으니 이것은 옛날의 聖君 賢相들이 誠意로써 서로 信賴하여 양쪽이 그 道理를 다하므로써 正大光明한 功業을 함께 이루었던 것」¹⁷⁾이라고 하였다.

16) 故去讒遠色賤貨而一於貴德所以爲勸賢之道也親之欲其貴愛之欲其富兄弟婚姻欲其無相遠故尊位重祿同其好惡所以爲勸親親之道也大臣不親細事則以道事君者得以自盡故官屬衆盛足任使今所以爲勸大臣之道也盡其誠而恤其私則士無仰事俯育之累而樂趨事功故忠信重祿所以爲勸士之道也人情莫不欲逸亦莫不欲富故時使薄斂所以爲勸百姓之道也日省月試以程其能錄廉稱事以償其勞則不信度作淫巧者無所容情者勉而能者勸矣爲之授節以送其往待以委積以迎其來因能授任以嘉其善不強其所不欲以矜其不能則天下旅皆悅以顯出於塗矣無後者續之如周武王立夏商之後已滅者封之(如齊桓公封衛國)治其亂使上下相安持其危使大小相恤朝聘有時而不勞其力貢賜有度而不費其財則天下諸侯皆竭其力以蕃衛王室而無倍畔之心矣(上同)

17) 夫勞於求賢而逸於得人任則不疑而疑則不任此古之聖君賢相所以誠意交孚兩盡其道而有以共成正大光明之業也(上同)

위와같이 晦齋가 引用한 朱子學說에 의하면 朱子는 「九經」은 그 일 곧 內容은 같지 않으나 그 實을 總合한다면 修身, 尊賢, 親親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眞德秀는 말하기를 「九經의 說은 朱熹가 다 說明하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기 「大學에는 誠意正心은 먼저 말하고 修身을 뒤에 말했는데 中庸九經의 차례는 修身에서 부터 始作한 것은 어떤 理由인가」한데 眞德秀는 대답하기를 修身의 緊要한 것이 齊明盛服非禮不動인데 이것이 所謂 敬이다. 敬하면 뜻이 정성스럽게 되므로(意誠) 마음이 바른 것(正心)은 그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 朱熹의 「一」로서 「誠」이 되는 것은 무슨 理由인가 한데 대답하기를 天下의 理가 「一」이면 純粹하고 「二」이면 混雜되니 純粹하면 誠이고 混雜하면 妄이다. 修身이 純一하지 못하면 善惡이 混雜될 것이고 尊賢이 純一하지 못하면 邪正이 混雜될 것이니 「二」되지도 않고 雜되지도 않는 것이 誠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므로 舜임금은 「惟一」이라고 하고 伊尹은 「克一」이라고 하고 中庸에는 「行之者一」이라고 한다는 것이다.¹⁸⁾

以上과 같이 《中庸》 「凡爲天下國家有九經」부터 「所以行之者一也」까지에 관한 先儒呂大臨, 朱子, 眞德秀의 諸說을 들어 衍義하고 끝으로 晦齋先生이 按察하고 있다

先生은 「虞書皋陶謨에 말하기를 삼가 그 몸을 닦으며 생각을 오래 (思永)하며 九族을 돈독히 펴며 여러 밝은 이가 힘써 도우면 가까운데로 부터 먼 곳까지 잘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임금이 德을 행하면 臣下가 도울 것이니 修身則齊家治國하여 가까움으로 부터 먼데 미치게 되니 그 道理가 이에 있다)고 하였으니 中庸九經의 차례가 대개 이에 근본하였다」고 한다.

이어서 말하기를 「대제 帝王의 政治하는 道는 반드시 修身으로 첫머리를 삼는 것은 대개 政治하는 道는 근본과 끝(末)이 있으니 근본이 바르면 末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고 孟子의 恆言章¹⁹⁾을 引用하면서 「本은 나무의 밑둥치(根本)가 있는 것과 물의 本源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 뿌리가 튼튼하여야만 枝葉이 茂盛하고 물의 근원이 맑아야 流派도 맑게 된다고 한다. 이와같이 君主의 一身은 四方의 表準이 되고 百官萬民의 儀刑이 되니 一言一動을 구차스럽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修身則道立」이라 하였으니 자기몸에 道가 이루어지므로서 能히 백성의 表準이 된다고 말한다 君主가 위에서 修身하여 天下에 模範이 되니 父子의 仁을 다하여 天下父子된 者は 이에 모범을 취하며 君臣의 義를 다하여 天下의 君臣된 者は 이에 모범을 취하며 夫婦의 道를 다하여 天下의 夫婦된 者は 이에 모범을 취하며 兄弟 朋友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家齊國治天下平이 된다 所謂 君主가 그 표준을 세운다는 것은 自身에 근본하여 庶民에 徵驗하는 것이 이것이다」고 한다

「尊賢이 修身다음 차례인데 그것은 대개 君臣의 道는 乾에 坤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고

18) 眞德秀曰九經之說朱熹盡之矣或謂大學先言誠意正心而後修身中庸九經之序乃自修身始何邪曰齊明盛服非禮不動此所謂敬也敬則意誠心正在其中矣熹之以一爲誠何也曰天下之理一則純二則雜純則誠雜則妄修身一善惡雜矣尊賢一邪正雜矣不二不雜非誠而何故舜曰唯伊尹曰克一中庸曰行之者一(上同)

19) 孟子曰人有恆言호대 皆曰天下國家라 하느니라 天下之本은 存國하고 國之本은 在家하고 家之本은 在身하니라 《孟子》離婁章句上

하고 易經²⁰⁾에 「乾은 易로써 알고 (乾은 쉽게 알고) 坤은 簡으로써 能하다 (坤은 이어서 能하다) 乾의 德이 비록 크더라도 坤의 順承이 없다면 만물을 生(生萬)하는 功을 이룰 수 없으며 君主가 비록 聖哲의 資質이 있더라도 진실로 德이 같은 臣下를 얻어 天位를 같이하여 天職을 다스리지 않으면 또한 治化의 美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飛龍在天이니 利見大人이니라²¹⁾ (나는 龍이 하늘에 있으니 大人보는 것이 利롭다) 하였으니 대개 같은 기운은 서로 求한다 (同氣相求)²²⁾는 것을 말한 것이다. 堯임금이 舜을 얻지 못한 것을 自己의 근심을 삼았으며 舜임금은 禹와 皐陶를 얻지 못함으로써 自己의 근심을 삼았으니²³⁾ 堯舜의 지혜로도 賢人을 求하는데 汲汲함이 이와같았으니 대개 政治하는 道는 이보다 더 急한 것이 없다.」고 한다.

孟子는 「堯舜의 仁으로서도 모든 사람을 두루 다 사랑할 수가 없었으니 그 理由는 우선 賢人을 親함이 急했기 때문이라²⁴⁾」고 하였다. 周子는 마음을 순수하게 하는것이 요긴했지만 賢人을 쫓아 급하다고 하였으니 九經의 뜻을 깊이 터득했다 할 것이다. 대체로 聖人은 세상에 흔히 나지 않으며 賢인도 때(時)로 얻을 수 있는것이 많으니 聖賢을 얻기가 진실로 어려우니 이미 얻었다면 마땅히 그 尊敬하는 禮를 이루어야 한다. 或은 賓師의 位에 處하게하고 或은 調變의 職을 맡기고 或은 論思의 地位에 두어 그들로 하여금 가르침을 드리고 道를 論하게 한다면 반드시 能히 德業을 輔成하고 天下를 教化하게 할 것이다. 만일 혹 賢人을 좋아함이 정성스럽지 못하여 或은 讒言과 奸邪에 離間되고 或은 財貨와 女色에게 마음이 옮겨지게 된다면 賢者는 才能을 가지고도 배필지 못하고 도리어 擯斥廢黜의 禍가 있게 될 것이니 이것이 天下가 亂世가 많고 治世가 적은 所以라는 것이다. 君主가 이미 修身尊賢의 道를 다하고 장차 天下에 德을 베풀려면 반드시 親親에서 시작하여 疎遠한데까지 미치게 할 것이니 厚하게 할 곳에 薄하게 하고 薄하게 할 곳에 厚하게 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孟子의 所謂 (孟子가 말하였다. 君子는 만물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지만 仁慈하게 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百姓에 대해서는 仁慈함을 베풀지만 親하지는 않는다) 親한 이를 親하고 백성에 仁慈함을 베풀고 만물을 사랑하느니라.²⁵⁾ 는 것과 大學의 이른바 家齊而后에 國治라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그 順序가 마땅히 修身다음에 있어야 될것인데 이제 尊顯의 뒤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개 道가 親親보다 먼저 할 것이 없으나 그러나 能히 尊賢하지 않고는 親親의 道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大臣은 그 職務가 重要한데 있어 治亂安危가 달려 있으니 選任을 慎重히 하지 않을 수 없으며 禮敬을 厚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選任을 삼가하면 밝게 알고 篤實이 믿어 成功을 바라는 安逸이 있고 禮敬을 厚하게 하면 職務를 專一히하고 責任을 무겁게하여 그도 經國濟民의 뜻을

20) 擊辭上傳 第一章

21) 乾卦 九五爻辭

22) 乾卦 九五爻 文言

23) 堯 | 以不得舜으로 爲己憂하고 舜이 以不得禹皐陶로 爲己憂하시니 (《孟子》勝文公章句上)

24) 孟子 | 曰知者 | 無不知也 | 나 當務之爲急이오 仁者 | 無不愛也 | 나 急親賢之爲務 | 나 堯舜之知로 而不偏物은 急先務也 | 오 堯舜之仁으로 不偏愛人은 急親賢也 | 니라 (《孟子》盡心章句上)

25) 孟子 | 曰君子之於物也 | 愛之而非仁하고 於民也 | 仁之而非親하느니 親親而仁民하며 仁民而愛物이니라 (《孟子》盡心章句上)

다할 것이다. 이것은 大臣을 尊敬하는 道이다. 만약 大臣을 任用하는데 마땅함을 잃고 或시 李林甫, 蔡京, 韓侂胄의 무리와 같은 姦凶을 끼어 寵愛尊敬을 잘못 加하면 天下의 禍를 이루다 말하겠는가.

君主는 元首가 되고 臣下는 手足耳目이 되어 一體로서 서로 依賴한다. 君主가 臣下에게 情義로 사귀어 通하고 항상 愛護하면 臣下도 또한 君主를 腹心과 같이 대할 것이니 어찌 그 忠誠을 다하지 않는자가 있을 것인가. 만약 혹 上下가 사귀지 않고 情義가 疎隔하여 太馬土芥처럼 대하게 된다면 비록 忠誠과 智謀가 있는 臣이 있더라도 또한 그 마음을 다할 수 없으니 이것은 또한 否奉治亂의 말미암는 바이라고 한다.

임금과 백성이 서로 依支하여 命을 삼는 것도 父母가 子息에게 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백성의 즐거움을 즐겨하고 백성의 근심을 근심하여 撫育慈愛하여 赤子처럼 保護하면 백성들도 또한 그 임금을 父母처럼 대한다. 百工을 오게하고 遠人을 편안하게 하고 또 諸侯를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는 것은 親한 이를 親하게하고 백성을 부모가 자식사랑하듯 하는 마음을 미루어 天下에 미치게 한 것이다.

聖인이 政治를 論함이 이 같은데 그쳤으니 帝王의 政治하는 規模도 이에 갖추어 있다. 이미 九經의 뜻을 진술하고 또 九經을 실행하는 要領은 一에 있다고 하였는데 一이란 正성(誠)을 이룬것이다. 九經의 道는 모두 君主의 마음에 근본하였으니 마음이 正성스럽지 못하면 아홉가지가 모두 虛文에 돌아가고 政治를 할 수 없다. 옛 聖帝 明王이 九經의 道를 行하면서 一以貫之하였으니 이것이 人心을 感動시켜 天下가 和平하게 한 所以라고 한다.²⁶⁾

위와같이 先生은 政治하는 道(爲治之道)의 總論의 奧旨를 窮理하고 衍義코저 하였다. 그 原則은 《中庸》의 哀公問政篇의 「九經」을 들고 이에 대한 諸說을 引用衍義하고 끝으로 先生自說을 論述하는데 《虞書》《易經》《孟子》《大學》와 先儒 諸說을 引用하면서 「修身」「尊賢」「親親」「敬大臣」「體群臣」「子庶民」「來百工」「柔遠人」「懷諸侯」의 차례로 그 뜻을 衍義함에 있어 精密하고 빠짐없이 두루 망라하고 있다. 결국 九經의 道는 君主의 마음에 근본하였으니 마음에 正성(誠)이 없으면 아홉가지가 空虛한것 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같은 九經은 先生이 大學의 八條目과 表裏를 이룬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음으로 考察의 對象은 大學의 三綱領 八條目으로 옮겨서 考察하고 있다

이에앞서 己酉(1549年)에 《大學章句補遺》의 著述을 마친바 있다 先生은 여기서 「옛날 聖인의 사람가르치는 法은 綱領이 있고 條目이 있어 孔子는 이것을 講明하여 그 弟子에게 傳受하고 曾子는 이것을 記述하여 後世에 傳하였다」고 하고 《虞書》에는 「能히 큰 德을 밝혀서 九族을 親하게하니 九族이임의 친목하게 되었고 백성을 고르게 밝히신즉 백성이 昭明하며 萬邦을 合하여 고르게 하신대 黎民(백성)이 착해져서 이에 和하게 되었다」²⁷⁾하고 또 「人心은 惟危하

26) 九經之道皆本於人主之心有不誠則九者皆歸於虛文而無以爲治矣古之聖帝明王行九經之道而一以貫之此所以感人心而天下和平也《中庸九經衍義》卷之一總論爲治之道條

27) 克明俊德하사 以親九族하신대 九族이 既睦이어늘 平章百姓하신대 百姓이 昭明하여 協和萬邦하신대 黎民이 於變時雍하니라. (堯典)

고 道心은 惟微하니 惟精惟一하야사 允執厥中하리라²⁸⁾한 것을 引用하여 大學一篇의 뜻은 대개 이에 根本하였으니 그 「큰 德을 밝혀서 民이 착해지는」데 까지는 大學의 「明明德親民의 지극한 것」이요, 「惟精惟一者」는 大學의 「明明德의 일」이요 「允執厥中」이라는 것은 大學의 明明德이 至善에 그치고 新民이 至善에 그치는 것도 또한 여기에 말미암는다고 한다. 八條目으로써 말한다면 「큰 德을 밝힌다는 것」(明俊德者)은 修身以上の 일이며 「九族을 親한다는 것」(親九族者)은 齊家の 일이며 「平章百姓에서 協和萬邦까지」는 「治國平天下의 일」이라고 한다.

八條目가운데 「正心」二字는 實로 虞書中에서 온 것이니 그 「格物, 致知, 誠意, 正心」이라 한 것은 虞書의 「惟精惟一」을 이른것 이라고 하고 前後의 聖人이 盡性立教한 規模가 符節처럼 들어 맞고 日月처럼 밝아져서 의심날 것이 없다. 孔子가 堯舜의 道를 祖述하고 曾字의 傳한 바도 실로 書經에 근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秦나라때 焚書한 뒤에 聖人의 年代는 멀어지고 聖人의 말은 湮滅한지 千餘年이나 되었다. 다 행히 하늘이 斯文을 亡滅시키지 않았으므로 程子, 朱子, 數君子가 세상에 나서 이에 이 《大學》을 表章하였다. 다시 錯誤를 改定하고 微繼를 發揮하였으므로 一篇속에 綱領과 條目이 한하게 밝아졌다 이에 學問하는 이는 힘쓸바를 알고 政治하는 이는 根本할 바를 알게 되었으니 그 斯道에 큰 功勞가 있다²⁹⁾고 하고 先生은 經文中의 그 節을 取하여 格物 致知章의 글로 만들었다.³⁰⁾

先生은 「九經」을 衍義하는데 있어 먼저 「爲治之道」를 總論하였는데 그것은 前述한 바와 같거니와 덧붙여 「九經」과 表裏를 이루는 《大學》을 引用하고 그에 대한 諸家の 說로 衍義하고 끝으로 先生의 學說을 被歷하고 있다.

여기 引用된 것은 먼저 《大學》의 三綱領八條目이며 이에대한 朱子의 註釋을 引用하고 있다. 「明明德」「親民」「止於至善」三者는 大學의 綱領인데 「明德이란것」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얻은 것(人之所得乎天), 사람의 날때부터의 本來의 것, 虛靈不昧한것³¹⁾이며 衆理를 갖추어 萬事に 應하는 바의 것이다 다만 氣稟에 拘束되고 物欲에 掩蔽된다면 때로는 昏昧한 적도 있으나 그 本體의 밝음(明)은 일찌기 止息된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學者들은 마땅히 그 發現된 바에 因하여 이것을 밝혀 復初하여야 한다.

止란것은 반드시 이에 이르러 옳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至善」은 事理當然의 極致이며 天理

28) 儒教經典諺譯叢書의 《諺譯傳》(1924)의 풀이를 다음에 옮겨 놓는다 「訓讀」人心은 위대하고 道心은 적으니 精하며 一하야사 진실로 中을 잡으리라 「義解」이는 攝位를 命하고 그 임금되는 法을 가르침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萬事を 應하나니 形氣에 發한 마음은 사사롭기 쉬운 故로 人心을 危殆하다 함이요 義理에 發한 마음은 밝히기 어려운 故로 道心은 적다함이니 精하여 雜되지 말고 한결같이하여 變하지 말아 道心이 主宰되고 人心이 舍를 좇게 하여야 危殆한 者(人心)는 편안하고 적은 者(道心)는 나타나 過하다 아니하고 모자라지도 아니하여 中道를 잡으리니 然後에 天下國家를 다스릴지리라, 이 비록 帝王의 傳受하는 心法이나 實로 儒家學問의 根本이니라

29) 〈大學章句補遺序〉

30) 琴鍾友 〈晦齋先生의 政治思想研究〉, 《韓國의 哲學》第16號 (慶北大學校退溪研究所) p. 13

31) 虛靈不昧는 〈中庸章句序〉에서는 虛靈知覺이라고 하고 있다 虛란 一定한 固定的 內容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것을 意味하며 마음(心)의 屬性을 말할때 쓰인다 「方寸의 虛」 곧 「一寸四方的 虛」라고들 한다 靈이란 마음의 作用을 表現하는 말인데 그 作用이 不可思議한 것이다 어떠한 障害에도 妨害되지 아니하고 自由自在로 作用하는 것을 의미한다 不昧는 어둡지 않는것 곧 밝은것이다

의 極致를 다하여 一毫라도 人欲의 私念이 없는 것이다 마음(心者)이라는 것은 몸의 主가 되는바³²⁾이다. 단 한번이라도 그 本然의 正을 얻지 못함이 있으면 몸이 主된 바가 없게되니 비록 억지로 힘써 닦으려 하여도 또한 닦을 수 없다. 때문에 修身코저 하는 者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바름이 있어야 하는데 마음이 發한 바가 뜻이다 (마음이 發한바가 뜻(意)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發動은 반드시 뜻(意)만이 아니고 「知」와 「情」도 마음이 발동한 것인데 그 가운데서 「意」의 특징은 「어떤일을 하고저 하는것」이라고 한다). 한번이라도 私欲이 그 가운데 混雜되어 善을 하고 惡을 버림이 혹시 정성스럽지 못하면 마음에 累가 될 것이니 비록 억지로 힘써 바꾸고저 하여도 또한 바를 수 없다. 때문에 正心코저 하는 者는 반드시 먼저 그 뜻이 정성스러워야 한다. 「知」는 마음의 神明으로서 모든 이치를 神妙히하여 萬物을 主宰한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있지만 혹시 能히 그 表裏가 환하게 통하여 다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으면 隱微한 사이에 眞實과 妄佞이 錯雜해져서 비록 억지로 힘써 뜻을 정성스럽게 하려고 하여도 또한 정성스럽게 할 수 없다. 때문에 뜻을 정성스럽게 하려고 하는 者는 반드시 먼저 그 知를 미루어 極盡히 해야 한다. 「致」라는것은 미루어 이르는 것을 이름이니 知를 미루어 極盡한데까지 이르게 됨을 말한것이다.³³⁾

天下의 事物에는 반드시 각기 所以然의 理由와 所當然의 法則이 있으니 이른바 理이다. 사람으로 「知」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或 능히 그 精粗隱顯을 남김없이 窮究하지 못하면 「理」에는 아직 窮究하지 못한데가 남고 「知」도 반드시 가리워져(蔽)있어 비록 억지로 힘써 致知코저 하여도 되지않을 것이다. 그때문에 致知의 방법은 事物에 即하여 「理」를 관찰하고 그래서 事物에 極至한다. 「格」이란 極至라는 뜻이다. 이치를 窮究하여 極盡한데 이르는(至)것을 말한다 이 여덟가지는 大學의 條目이다. 또 말하기를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은 明德을 밝히는 일이고 齊家, 治國, 平天下는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 格物, 致知는 至善의 所在를 求해

32) 마음은 肉體의 主人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몸의 主가 되는 所以는 하나이고 둘이 아닌것, 主人이고 손(客)이 아닌것 物에 命하고 物로부터 命을 받지 않는것, 그러나 이것이 決코 肉體를 支配하는 精神을 意味하는것이 아니라고 한다

33) 致知의 「知」가 「識」과 같다고 하는것은 《論語》述以篇 第二條 默而識之의 朱子註는 「識」은 記(記憶)의 記) 그리고 「識」은 知이다 말하지 않고 心解하는것(識記也 默識謂不言而存諸心也一說識知也不言而心解也)이라고 하는데 이 一說의 「識知也」를 거꾸로 하면 「知」는 「識」이다가 된다 이것은 마음(心)에 理解하는것, 知識하는것, 知識을 의미한다 「致之」란 推極 곧 極度の 地點까지 미루어가는것 곧 知識이 어떤 點까지 到達하면 그 到達點으로부터 미루어가서 다음 지점까지 到達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미루어가서 第三의 지점에 到達한다 이와같이 知識을 究極點까지 미루어가는것 自己知識을 推極해 가서 그 아는바 곧 知識內容을 다함이 없지 않도록 한다 完璧하게 되도록 하는것이 致知의 意味라고 한다 이미 획득된 知識을 바탕으로 차례차례로 깊게 擴大해 가서 最後에는 完全한 知識에 致達하려고 努力하는 것이다 《語類》에는 또 「이들테면 어두운 室內에서 작은 밝은 點을 찾아서 그 밝은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忽然히 밖으로 나와 크게 밝은것을 보게된다」고 비유하고 있다 知의 對象은 要컨대 事物의 理이기 때문에 致知는 또 窮理라고도 한다 格物의 物은 事와 같다 이때 排他的으로 「事」의 意味라기 보다는 「物」字의 本來의 意味에 「事」의 의미를 뚜렷하게 덧붙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妥當하다 「事物의 理(이치)」의 用語例가 있다 格物의 解釋에는 72의 說이 있다고 하는바 朱子說이 널리 알려져 있다 「格」은 이르는것(至) 格物이란 「事物의 이치(理)에 窮究해 이르는것」 하나하나의 事物을 窮理하여 어떠한 窮極點에도 到達하지 않음이 없는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知識 完成의 前提條件이라는 것이다 「知」는 마음(心)의 神明이며 衆理에 妙하고 萬物을 주관(宰)하는 것이다 누구나 그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누구나 知가 表裏洞徹, 다하지 않음과 없게 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隱微한 點에 있어서 眞實과 妄佞이 錯雜해지기 때문에 努力하여 「誠」이 되고저하지만 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誠意者는 반드시 먼저 致知하여야 한다 致는 推極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니 誠意로부터 平天下에 이르기까지 至善을 求得하여 그치는것이다

物格以下는 上文의 뜻을 거듭 說明하는것이니 「物格」이란 것은 事物의 이치를 각기 그極盡한데까지 나아가서 남김없이 窮究하는것을 이른다. 이치가 事物에 있는것을 이미 그 極盡한데까지 나아가서 남김이 없으면 知의 나에게 있는것도 또한 나아간것에 따라서 다하지 않음이 없을것이다. 知가 다하지 않음이 없으면 마음(心)의 表現되는 바도 能히 理에 純一하여 스스로 속임이 없을것이며 뜻이 스스로 속이지 않으면 마음(心)의 本體를 事物이 能히 搖動할 수 없으므로 바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마음이 빠르게 되면 몸의 處한 바도 편벽한데 빠지지 않으므로 닳여지지 않음이 없을것이며 몸이 닳여지지 않음이 없으면 天下國家에 미루어서도 또한 이것을 들어 措處할 뿐이니 어찌 이것을 떠나 智謀功利의 末에서 求하리요고 한다³⁴⁾

以上과 같이 引用考察하고 先生의 論說을 펴고 있다. 앞의 〈大學章句補遺序〉에서 보는바와 같이 〈大學〉一篇의 뜻은 대개 堯典의 「克明俊德以親九族九族既睦平章百姓百姓昭明協和萬邦民於變時雍」에 근본하였다고하고 있다. 堯典의 이것은 대저 唐堯雍熙의 治는 盛大하다고 이를 만하나 그 根本은 峻德을 밝히는 데서 부터 시작한것이다 그 때문에 〈大學〉에서 明德을 밝히는 것으로써 百姓을 새롭게하는 실마리로 삼았으니 前聖後聖의 經世立教하는 規模가 符節을 습하듯 맞았다. 옛 政治의 道를 말하는者는 모두 自己몸에서 始作하여 家, 國, 天下에로 미루어 이르게 되는데 格物, 致知, 誠意, 正心을 먼저하고 修身은 뒤에 미치게 되는것은 〈大學〉에서 처음 말하였으니 帝王의 學問하는 次第와 政治하는 本末이 더욱 詳細하고 또 具備되었다 이것이 비록 〈虞書〉「精一」二字의 뜻에 근본하는 것이었으나 聖人의 말의 蘊奧를 推明하여 萬世에 垂訓하였으니 그功이 매우 크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先生은 〈大學〉의 傳十章(治國平天下를 해석한 章)의 「이른바 平天下가 그나라를

34) 格物致知(窮理)와 敬이 수레(車)의 두바퀴와 같이 생각되고 있다(王陽明은 敬을 말하지 않고 誠意를 強調한다) 或問의 敬에 대한 서술을 要約해본다

敬이란 무엇인가 程子是 敬이란 「主一無適」이라고 定義하고 또 「整齊嚴肅」이라고 說明하였다 主一無適이란 「敬이라는 것은 主一」하나를 主로 한다 그 「一」이란 「無適」, 가는것이 없는 것 곧 마음을 어디에도 보내지 않고 專一의 狀態에 保存해 가는것이 敬의 뜻이다 또 그 敬의 狀態를 整齊嚴肅이라고 한것은 所謂 「心身을 收斂하여 整齊純一放縱이 아니면 便是敬」이라고 한다 程朱의 敬의 特徵은 그 어떠한 것에 대한 畏敬 삼가하는것 물론 그것을 排除치 않는다」라기 보다 근본적으로는 오히려 마음(心)을 收斂하여 高度의 集中狀態를 持續해 가는데 있다 「聖賢은 敬이라고 하는 글자를 目的語없이 使用한 일은 없었다 아버지을 敬한다 임금을 敬한다 어른을 敬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敬이라는 글자를 썼다」고 하는 반박에 대해서 朱子是 대답한다 「그렇지 않다 修己以敬(論語憲問)과 같이 目的語없이 만일 임금, 아버지, 어른이라고 하는 對象이 있고 敬한다면, 君, 아버지, 어른이 눈앞에 안 계시때는 敬하지 않느냐」 程明道는 「나는 글을 쓸때 매우 敬한다 그것은 특별히 잘 쓰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것이 배운다(學)는 것이기 때문이다」(近思錄四)고 한다 단순히 「內」만의 것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나 敬의 對象으로 이를테면 道德律一般이라고 하는것을 생각할 수 없는것은 아니다 어쨌든 朱子學의 敬의 特徵으로서 無對象說이 있다 그밖에 程子門人謝良任(上蔡)의 「常惺惺之法」이나 尹 燾(和靖)의 「그마음을 收斂하여 一物도 不容한다」고 한다 謝上蔡說은 意識을 항상 깨어 있는것이 敬이라는 것이며 尹和靖說은 단 一物도 포함하는 일이 없을 정도의 極度の 마음의 收斂(거두어 들임)이 敬이라는 것이다

敬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그것이 學問의 出發點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大學의 첫머리에 明德은 말하나 敬에 대한 言及이 없는것은 〈小學〉에 詳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敬은 一心은 主宰인 동시에 萬事의 根本」으로 〈小學〉이 學問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敬에 依據해서 그런것이고 〈大學〉이 學問의 끝이라고 하는것도 역시 敬에 依據하기 때문에 그런것이다 聖學은 一以貫之 格物致知하여 事物의 이치(理)를 窮究하는것 誠意正心하여 修身하는것, 나아가서 齊家·治國·平天下 모두가 敬에 뒷받침 되어서 可能하다 어느 하나도 하루도 敬을 떠날 수 있는것이 아니다 以上이 〈或問〉과 《語類》에 의한 要約된 「敬」說의 대체이다 (島田虔次, 〈大學〉(朝日新聞社 1963) p. 73.

다스림에 있다는것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늙은이를 늙은이로 대접하면 백성들이 孝誠에 感發興起하고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면 백성들이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외로운 사람을 도와주면 백성들이 남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君子는 絜矩의 道를 가지고 있다」는 句節을 引用하고 朱子의 註釋을 부치고 있다. 朱子는 「老老」란 이른바 내집 늙은이를 늙은 이로 대접한다는 것이고 「興」이란것은 感發하여 興起함이 있음을 이룸이라고 한다 「老老」「長長」「恤孤」三者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行하는 바를 아래사람이 본받는것이 빠르기가 그림자가 형상을 쫓고 울림이 소리에 응하는 것보다 빠를 것이니 이른바 집안이 다스려지므로서 나라가 다스려진다. 또 人心이 普遍的으로 同一한것이며 한 사람이라도 그 處所를 얻지 못한 者가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을 볼 수 있다³⁵⁾ 이로써 君子는 반드시 그 같은 바에 因하여 (人心의 同一性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것을 미루어 곧 自己 마음을 미루어 他人의 마음을 헤아려(度) 齊家・治國에서 더 나아가서 널리 彼我 각각 분수에 맞는 願望을 이루게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면 上下四方이 均齊方正하여 天下平이 된다 「자(尺)로 네모꼴(方形)을 그린것처럼 上下四方이 모두 곧게 角度가 바르고 均齊히 正方形이 된다 이것이 바로 天下平」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물기를 上章에서 齊家・治國의 道를 論하면서 이미 孝, 弟, 慈로써 말하는것은 무슨 이유인가하거늘 朱子는 대답하기를 孝, 弟, 慈 三者는 人道의 大端 곧 人道의 端緒中 代表的인 것이며 衆心이 다같이 얻은바 (누구의 마음이나 同等하게 갖추고 있는바)이기 때문이다. 집(家)으로부터 나라에 미치고 나라로부터 天下에 미치게되니 비록 크고 작은 다른점은 있으나 人道는 이같은데 지나지 않을뿐이다. 다만 前章에는 오로지 自己를 미루어 (自己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이 化하는것만 말하였으므로 此章에서는 그것을 또 거듭 말하여 人心이 같은바 (所同)이고 所當然之則이 있어 스스로 마지 못함이 이같은 것을 보였으니 君子는 다만 사람을 化하게 할 뿐 아니라 (君子는 단순히 教化하는 手段을 가지지 않으면 안될 뿐 아니라 또 아래사람(또는 천한사람)을 處遇할 줄 알아야 한다. 대개 人間의 마음됨 비록 같지 않음이 없다하나 (人間의 마음의 本質은 結局 同一하다하더라도) 現實問題는 貴와 賤의 形勢가 다르고 (地位에 貴賤의 差別이 있고) 資稟에는 賢愚의 다름이 있으니 위에 있는 君子가 진실로 眞知 實踐하여 提唱하지 않으면 아래사람이 아무리 君子와 같은 마음을 가진 者라하더라도 또 感發興起함이 없는것이 당연하지만 다행히 提唱하는 者가 있어 興起하였다 하더라도 그경우에는 윗사람이 윗사람과 同一한 사람의 마음을 洞察하는 能力을 가지지 못하고 그 사람을 處遇하는 道를 잃게되면 興起한 마음도 結局 滿足하지 못하고 도리어 不均衡의 歎息이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君子는 마음의 同一性의 洞察로부터 絜矩의 道라는것을 얻은 뒤에 處遇의 方法을 세워서 그 興起의 善端을 이루게 될 것이다 (백성의 興起한 道義心을 어데까지라도 遂行시켜주는 것이다) 대개 「絜」은 度(헤아린다. 잴다)이고 「矩」는 (네모란것)을 만드는것 곧 方形을 그

35) 所謂平天下在治其國者上老老而民興孝上長長而民興弟上恤孤而民不倍是以君子有絜矩之道 《中庸九經衍義》總論爲治之道) 李載浩《國譯晦齋全書》를 아울러 參照

리는 道具(定規와 曲尺따위)인데 絜矩라는 것은 자를 대어서 直角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빼돌 어지지는 아니 하였나를 재어 보는것을 말한다. 제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려 남의 싫어하 는 것이 自己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면 감히 自己가 싫어하는 것으로써 남에게 베풀지는 않 을 것이다. 自己몸을 한결같이 이런 處地에 두어 上下四方 自他的 즈음에 각기 그 本分을 얻 어 서로 侵害陵越하지 않고 각기 그 中道에 나아가서 그 占據한 處地를 比較한다면 그廣狹長 短이 또한 모두 平均如一하고 截然方正하여 남거나 모자라는 곳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絜矩란 것이다.³⁶⁾ 대저 天下國家를 다스리면서 마음 가짐과 일을 處理하는 方式이 한결같이 이 대로 한다면 天地間에 장차 한가지 事物도 제자리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을것이다. 孝, 弟, 不 倍를 實行코저하는 者는 모두 그마음을 다하여 均衡하지 않다는 歎息이 없을것이니 天下가 그 다스려지지 않음이 있으리요. 그러나 君子가 이와같이 될 수 있는것은 또한 어찌 밖에서 부터 強制로 한 것이리요. 또한 「物格知至」때문에 天下 사람의 뜻에 通하여 千萬人의 마음이 한사람 의 마음임을 알게되고 뜻이 정성스럽고 마음이 바른 때문에 自己의 私欲을 克服하여 能히 한 사람의 마음을 千萬사람의 마음에 合致시키니 그 道는 이와 같을뿐이다. 조그마한 私意라도 그 사이에 介在한다면 그것이 膜이되어 밖은 문득 胡越이 될것이니 비록 絜矩³⁷⁾를 하고자 하더라도 또한 障礙되는 바가 있어 能히 通하지 못할것이다 (조그마한 私意라도 있다면 그것이 膜이 되어 中間에 介在하고 内「自己의 마음」과 外「남의 마음」은 서로 마치 無關係한 것으로 되어 버릴것이다 그래서 絜矩하려고 생각해도 中間의 膜으로 妨害하여 通할 수 없게 될 것이다.) 以上은 《大學》의 傳第十章의 第一節, 第二節 治國平天下를 풀이한것, 백성과 好惡를 같이하고 「利」를 오로지 하지 않도록 努力하는 要컨데 絜矩의 道를 미루어 넓힌것에 대한 朱子의 註釋 이다

다음으로는 丘濬의 《大學》의 같은部分에 대한 說을 덧붙이고 있다. 그는 「平天下의 道」는 사 람을 化하게 하고 事物을 量度處理하는 두가지에 벗어나지 않을뿐이라고 하고 대개 人君은 한 사람의 몸으로 天下의 큰땅에 臨하였으니 한地方만이 아니니 能히 곳곳을 親히 밟을 수 없다.

36) 所惡於上으로 母以使下하며 所惡於下로 母以事上하며 所惡於前으로 母以先後하며 所惡於後로 母以從前하며 所惡於右로 母以交於左하며 所惡於左로 母以交於右 | 此之謂絜矩之道 | 나라

(自己보다) 윗사람이 하는 것이 자기에게 싫은것이 있을경우 그것을 가지고 自己아랫사람을 시켜서는 안된다 (부리지 말라) 아랫사람이 하는 것이 自己에게 싫은것이 있을경우 그것을 가지고 自己윗사람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 있는자가 나에게 싫은것은 그것을 가지고 뒷사람 앞에 서서는 안된다(뒷사람에 對해서는 안된다) 뒷사람 의 나에게 싫은것은 그것을 가지고 앞사람의 뒤에 쫓아서는 안된다 오른쪽 사람의 나에게 싫은것을 가지고 왼쪽사람과 사귀어서는 안된다 왼쪽사람의 나에게 싫은것을 가지고 오른쪽사람과 사귀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絜矩之 道라고 한다

이 一節은 絜矩라고 하는 二字를 다시 해석한 것이다 만일 윗사람이 나에게 無禮한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 는다면 그 마음을 기준으로 하여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그와같은 無禮를 가지고 아랫사람을 敢히 부리지 않는다 또 아랫사람으로 부터 不忠한 일을 받기 싫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윗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그와같은 不忠으로 윗사람을 敢히 섬기지 않는다 前·後·左·右 어느것에 대해서도 꼭 같다 自己가 바라지 않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도 하지 않는다 누구도 侵犯하지 않는다고 하는데까지 達하면 나(나라는 正方形)를 둘러싼 上下 四方사람은 각기 그 畛(分)을 얻어 서로 侵犯하지 않고 그 處하는바 地位의 長短廣狹 모두 均平同一하며 정확 한 正方形이 아닌것이 없다 이것이 이른바 絜矩이다 물론 天子·諸侯·大夫·士·庶人이라는 身分의 區別이 있는 現實世界에서 자(矩)로 재는 것과 같은 획일적인 것은 不可能하다고 할것이지마는 絜矩의 道の 指標은 上 下의 分寸을 均平케 하고저 하는 것은 아니다 어버이를 섬기는것 어른을 섬기는것을 다같이 平等케 하고 上下 모두 行하게 하자는 것이다

37) 「絜矩之道」와 「忠恕」와 같다고 하는이도 있다

한사람이 한사람만이 아니므로 能히 사람마다 親히 告諭할 수도 없으니 반드시 天下를 治平하고저 하더라도 어찌 能히 일일이 두루 다니겠는가 하고 한다. 대저 내가 이 本然의 性이 있으므로 다른사람도 또한 이 本然의 性이 없지 않으니 내가 나의 本然의 性을 다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觀感興起케하여 그 本然의 性을 다하기를 모두 나의 本然의 性과 같이 할것이니 이것이 所謂 다른사람을 化하게 한다는 것이다. 대저 내가 이 當然의 理가 있으므로 다른사람도 또한 이 當然의 理가 없지 않으니 내가 나의 當然의 理로써 미루어 量度處置하여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각기 當然의 理언기를 모두 나의 當然한 理와 같이 할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事物을 處理한다는 것이다. 대개 다른 사람을 化하게함은 내몸으로써 하고 事物을 處理함을 각기 그 사람의 몸으로써 할것이니 그사람의 所有한 理는 곧 나의 所有한 理인 것이다 이 理는 마음에 갖추어 있어 性이되므로 사람마다 모두 같으니 내마음으로써 다른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윗사람이 行하매 아랫사람은 이것을 본받아 각기 마음을 다하고자 할것이며 自己의 마음으로써 다른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彼此가 서로 비교되어 각기 그 分願을 얻게 될것이다 반드시 다른사람과 나와 의 사이에 上下四方이 서로 侵越됨이 없고 前後左右가 서로 違背됨이 없게 하려면 面面이 그所處할 方位를 얻고 人人이 그所有할 分數를 얻어 대강 이것을 보든지 자주 이것을 觀察하던지 모두 截然히 正方하여 高低, 廣狹, 長短의 不均한 곳이 없게 될것이니 이것이 所謂 絜矩이다. 絜矩의 마음으로써 絜矩의 政治를 行한다면 天下의 큰것에도 장차 한사람이라도 그本分을 얻지못한 이가 없을 것이며 한가지 일이라도 그이치를 얻지 못한것이 없을것이며 한 地方이라도 그教化를 順從하지 않은곳이 없을 것이다. 사람마다 그親한 이를 親하고 그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고 恤孤하여 家에서 나라에로 미치면 나라에 그렇지 않은데 없으며 나라에서 天下에로 미치면 天下에서도 그렇지 않은데가 없을 것이니 이른바 王道는 平平하고 王道는 蕩蕩하고 王道 正直의 端緒가 이에 있다³⁸⁾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孟子》에서 引用衍義하고 있는바 「孟子가 말하였다. 道가 가까이 있거늘 면드에求하려 하고 있다. 사람 사람이 그 親한 이를 親하고 그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면 天下平이 될 것이다」³⁹⁾고 하여 高遠한 어려운것보다 卑近한 일에 진정한 道의 出發點이 있다고 한다 道의 性格이 결코 高遠한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日常性에 있다는 주장은 儒敎의 重要な 特質이다. 「親其親 長其長」은 家族倫理에 根據하고 있다 晦齋는 이에 대한 朱子의 註釋을 먼저 引用하였다. 곧 親한이와 어른은 사람에 있어서 매우 가까움이 되고 親하고 어른섬기는 일은 사람에 있어 매우 쉬운일이 되는 것이니 道도 처음부터 이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를 버리고 다른것을 求하면 멀고도 어렵게되어 도리어 道를 잃어 버리게 될 것이다. 다만 사람마다 각기 그 親한 이를 親하고 그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면 天下가 다스려질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어 張栻(張南軒)의 註釋을 引用하였다 곧 親한 이를 親하는 것이 「仁」이고 어른을

38) 以絜矩之心行絜矩之政天下之大將無一人之不得其分 無一事之不得其理無一地之不從其化人人親其親長其長恤其孤由家而國國無不然由國而天下無不然所謂王道平平王道蕩蕩王道正直端有在於斯矣 (《中庸九經衍義》卷之一)

39) 孟子曰 道在爾而求諸遠하며 事在易而求諸難하니 人人이 親其親하며 長其長이면 而天下 平하리라 (《孟子》離婁章句上)

공경하는 것이 「義」이다. 仁義는 몸에 근본하여 天下에 達하게 되니 어찌 道의 가까운 것이 아니며 天下가 다스려지는 것은 실로 이에 매여졌으니 어찌 일의 쉬운 것이 아니리오. 이 몇 말을 吟味하여 보면 堯舜 三王의 政治도 可히 미루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晦齋는 《孟子》의 이 節에 대한 論述을 펴고 있다.

곧 孔子가 말씀하시기를 先王은 至德要道를 가지고 天下를 和順케하고 백성이 和睦하고 上下가 원망이 없다고 하셨다. 대저 所謂至德要道라고 하는 것은 孝弟일 뿐이다. 대개 愛親敬兄은 人生의 固有한 바에 근본하여 스스로 能히 마지 못함이 있는 것이니 그 道가 지극히 가깝고 그것을 行하기도 또한 매우 쉬운 것이다.

윗사람이 能히 몸소 실천하고 倡率하여 天下의 사람을 하여금 각기 그 孝弟를 行하게 하면 和順睦睦의 氣風이 流行하여 乖爭陵犯의 習俗이 終息될 것이니 「平天下」가 되지 않겠는가. 唐虞三代의 세상에는 風俗이 淳厚하여 오랫동안 다스려지고 편안하여 禍亂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和氣가 充溢하고 瑞慶이 아울러 이르렀으며 이道を 섰던 것이다. 그 때문에 堯舜의 道는 孝弟일 뿐이라고 하셨으니 人君이 만약 옛 盛世의 政治에 뜻을 둔다면 이로써 근본을 삼을 것이 아닌가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晦齋는 《孟子》의 다른 句節을 引用하여 按察하고 있다. 곧 「내집 늙은이(나의 父兄)를 늙은이로 섬겨서 남의집 늙은이에 미치며 내집 어린이를 慈愛하여 남의집 어린이에게 미치면 天下를 마치 손바닥 위에서 굴리듯 쉽게 다스릴 수 있으니 《詩經》⁴⁰⁾에 우선 부인에게 모범이되어 바르게 하고 兄弟들에게 미치고 마침내는 집과 나라를 다스린다 하니 이 마음을 들어서 남들에 미치게 했을 뿐이다. 그때문에 은혜를 미루어 나가면 족히 四海를 보전하고 은혜를 미루지 못하면 妻孥를 보전치 못하리니 옛사람이 기금 사람들보다 크게 뛰어난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잘 그하는바를 미루어 미치게 할 뿐이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晦齋는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곧 내집 늙은이를 늙은이로 섬기는 것은 孝이고 내집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慈이니 孝慈는 仁의 根本이다 孝慈를 한 집안에서 다 행하고 이것을 미루어 남에게 미치게 한다면 仁이 입혀지지 않는데가 없을것이다. 옛적 聖帝明王의 政治는 비록 高遠하여 後世에서는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政治하는 根本의 까닭을 求해 본다면 대개 또 이 마음일 뿐이다.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진실로 賢明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꼭 같은 일이다. 다만 聖人은 그 하는 바를 잘 미루어 親近한데서 疏遠한데로 미치게 하고 가까운데서 먼데로 미치게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四海內가 모두 은혜를 입게 되고 많은 백성(群黎)과 많은 各種生物이 각기 그 性을 이루게 되어 그 功化의 極知는 마침내 化育을 돕고 天地人三才에 參與하게 되는 것이다.

옛 盛世에 백성이 화락하게 잘사는 政治도 이에 벗어나지 않는 까닭으로 孟子는 齊宣王에게

40) 大雅思齊篇 文王의 덕을 칭송한 句節이다

이 마음이 죽히 王天下할 수 있다고 告하였다. 또 이 마음을 들어서 他人에게 미치게 했을 뿐 이라고 하였으니 帝王의 政治하는 근본을 깊이 體得하였다고 할 수 있다. 君主가 비록 이 마음이 있더라도 能히 恩惠를 미루어 미치지 못한다면 骨肉의 至親도 또한 能히 保全할 수 없을 것인데 하물며 天下生民의 衆이겠는가 後世에는 혹 天下의 큰것으로 그 父를 庇護하지 못하며 天子의 貴로 能히 그 妻子를 保全하지 못한자가 있으니 그 恩惠를 미루어 미치지 못한 허물에서 말미암는 것이다. 聖賢의 말씀이 萬世에까지의 徵驗이 蓍龜와 다름이 없으니 남의 윗사람이 된 者는 되풀이하여 警戒하고 省察할 진저고 하였다.

다음으로 또 《孟者》의 一節을 引用하고 朱子, 程子,⁴¹⁾ 張栻의 說을 들고 끝으로 晦齋 自說을 덧붙이고 있다.

곧 孟子가 말했다. 신하의 잘못을 일일이 들어 책망하여도 소용없고 또 政事의 잘못을 일일이 들어 비난해 봤자 역시 소용이 없다

오직 德이 큰 大人만이 임금을 감화시켜 自身의 생각의 잘못을 고치게 할 수가 있다. 임금이 어질면 신하들도 어질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임금이 義를 지키면 신하들도 義를 안 지킬 수가 없고 또 임금이 바르면 신하들도 바르게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오직 일단 임금만을 바르게 하면 그 나라가 바르고 편안하게 된다.⁴²⁾

이에 대해 朱子는 君主의 用人의 잘못을足以 책망할 수 없고 行政의 잃음(失)을足以 非難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大人의 德이 있으면 能히 君主의 마음이 不正한 것을 바로 잡아 바르게 돌아오게하여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는 일이 없다. 大人이란 大德人으로 自己를 바르게 하여 남을 바루는 者라는 것이다.

程子는 말하기를 天下가 다스려지고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君主의 어질고 그렇지못한데 달려있으니 마음의 그릇됨은 곧 政事에 害를 끼치는 것이므로 外部에 發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옛적에 孟子가 帝王을 세번이나 보고서도 일을 말슴하지 않았으니 門人이 이를 의심하니 孟子는 「내 그 邪心を 먼저 다스려서 마음을 이미 바로 잡은 뒤에라야 天下의 일도 따라서 다스려질 것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대저 政事의 失策과 用人의 그릇된 것은 智慧있는 사람만이 能히 이것을 고칠 수 있고 正直한 사람만이 能히 이것을 諫할 수 있으나 마음이 항상 있지 않으면 일마다 고쳐도 뒤에 다시 그 일이 있을것이니 장차 그 고치는 것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며 사람마다 除去하는 것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이로써 輔相의 職責은 반드시 君主의 마음이 그릇됨을 바로 잡는데 있으니 그렇게 하여야만 바로 잡히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나 君主의 마음이 그릇됨을 바로잡고자 하는 者도 大人의 德이 없으면 또한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41) 陸雍熙曰王之治不治不越於此故孟子告齊王曰是心足以王矣又曰舉斯心加諸彼而已可謂深得帝王爲治之本矣人主雖有是心而不能推恩則骨肉之親亦有不能保者而況天下生民之衆乎後世或以天下之大而不能庇其父以天子之貴而不能保其妻子者有矣由其不推恩之過也聖賢之言驗於萬世無異 龜爲人上者可三復而警省乎(《中庸九經衍義》卷之一)

42) 孟子曰人不足與適也政不足問也라 惟大人이아 爲能格君心之非니 君仁이면 莫不仁이오 君義면 莫不義오 君正이면 莫不正이니 一正君而國이 定矣니라 《孟者》 離婁章句上)

張栻은 後世에는 道學이 밝지 못하여 政治를 論하는 者도 人才와 政事에만 言及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였을 뿐이니 누구나 그 根本이 君主의 마음에 있음을 알며 또 누가 君主의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 내몸에 있음을 알았으리요 하였다.

以上과 같이 諸說을 引用하고 晦齋自說을 펴고 있다.

唐虞三代之 政治도 身心에 근본하지 않고 天下에 達하는 것은 있지 아니하였다. 대개 君主는 萬方의 宗이 되고 마음은 君主의 몸의 主가 되니 君主의 마음이 바르면 天下의 일이 바르지 않는 것이 없다. 만약 그 根本을 바꾸지 않고 末葉이 다스러지기를 求한다면 될 수 있겠는가 고 한다

周나라가 衰頹하여 文王 武王의 時代가 이미 멀어지고 周公 孟子도 또한 세상을 떠났으니 聖道가 밝지 못하고 邪說이 橫行하여 君主와 臣下된 者는 다만 智謀功利만이 時急하고 法度刑政만을 힘쓸 줄만 알고 다시 治道의 근본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함으로써 天下가 더욱 요란하여 구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善治에 뜻을 둔 이가 있었으나 다만 能히 用人, 政事의 사이에서만 살폈을 뿐 그 근본 바꾸는 것은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때문에 孟子의 말씀이 이에 미쳤으니 聖賢이 天下生民을 위하여 매우 念慮하였던 것이다.

아! 君主의 一心은 萬化의 根源이니 君主로써 政治하는 것의 근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바를것을 생각한다면 好惡을 공변되게 하고 邪正을 辨別하여 人才를 쓰고 버림이 모두 이치에 합당하고 政事가 闕失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臣下로서 政治를 보좌하는 要領이 있다는 것을 알고 君主의 마음을 바로 잡을것을 생각한다면 陳善閉邪하여 조금이라도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君主를 聖君으로 만들고 백성에게 恩澤을 끼치되 작은 업무에 精神을 虛費할 必要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董仲舒의 說을 引用하였다. 董仲舒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君主된 者는 마음을 바꾸어서 朝廷을 바꾸고 朝廷을 바꾸어서 百官을 바꾸고 百官을 바꾸어서 萬民을 바꾸고 萬民을 바꾸어서 四方을 바를 것이니 四方이 바르게 되면 遠近地方이 敢히 바른데로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邪氣가 그사이에 侵犯하지 못할 것이다. 이로써 陰陽이 調和되어 風雨가 때(時)에 맞고 群生이 和集하여 萬物이 繁殖하게 된다⁴³⁾는 것이다

여기에 眞德秀의 說을 부치고 있다. 곧 董仲舒는 이르기를 孟子의 뒤로부터 이에 따라갈 자가 없었다고 하고 대개 朝廷은 天下의 根本이고 君主는 朝廷의 근본이며 마음은 또 君主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君主가 能히 그 마음을 바꾸어 湛然清明케하여 事物이 能히 疑惑되지 아니하면 發號施令이 잘되어 朝廷이 바뀌어질 것이며 朝廷이 바뀌어지면 賢人과 不肖人이 分別이 있고 君子와 小人이 서로 地位가 바뀌어지지 않으므로 百官이 바뀌어질 것이니 以下의 것은 다만 그대로 施行될 것이다. 대저 하늘(天)과 사람(人)은 본래 一氣와 같으므로 人事가 바르면 正氣가 이에 應하게 되니 이것은 善祥의 모음의 말미암는 바이고 人事가 바르지 못하면 邪氣

43) 董仲舒曰爲人君者正心以正朝廷正朝廷以正百官正百官以正萬民正萬民以正四方四方正遠近莫敢不一於正而亡有邪氣奸其間者是以陰陽調而風雨時群生和而萬物殖 《中庸九經衍義》卷之一董仲舒條

가 이에 應하게 되니 이것은 災異가 이르게 된다. 그 근본은 君主의 一心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通書에서 引用, 考察하고 있다. 通書에 이르기를 天下를 다스리는 근본이 있으니 몸(身)을 이룸이고 天下를 다스리는데 準則이 있으니 집(家)을 이룸이라고 하고 根本은 반드시 바꾸어야 되니 根本을 바꾸는 것은 마음을 정성스럽게 할 뿐이고 準則은 반드시 善해야 되니 準則을 善하게 하는 것은 和親(父子兄弟夫婦의 불임의 和睦)일 뿐이라고 한다.

집(家)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워도 天下를 다스리는 것은 쉬우니 집(家)은 親한데 天下는 疏遠한 것이다 家人의 乖離는 반드시 婦人으로 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睽卦가 家人卦다음에 온다 睽卦에 어긋짐(睽)은 二女가 同居하나 그 뜻이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堯임금이 二女를 媯汭에 내려보내 舜에게 시집보낸 것은 舜에 禪位할 것인가를 試驗한 것이다. 이것은 天下 다스림을 집안(家) 다스림에서 보고 집안(家) 다스림을 自己몸 다스림에서 볼 뿐이다. 몸이 바른 것은 마음이 정성스러운 것을 이룸이요 정성스러운 마음은 그 不善의 움직임을 돌이킬 뿐이다. 不善의 움직임은 망녕(妄)됨이다 망녕됨을 돌이키면 無妄이다. 無妄은 정성이기 때문에 无妄卦가 復卦 다음에 온다. (天下에 雷行하니 雷의 震動은 陰陽의 和合이며 萬物을 發生하게 하고 萬物에 각기 屬性을 規定한다. 이것은 萬物 하나 하나에 각기 无妄을 賦與하는 것이다.) 先王은 이것에 모방해서 크게 天時에 맞추어 萬物을 養育한다하니 뜻이 깊다고 通書에 말하고 있는 것을 引用하고 있다.

이것을 眞德秀는 周敦頤의 말은 前代의 聖人과 實로 符合한다고 하고 대개 마음이 정성스럽지 않으면 私意와 邪念이 紛紜히 번갈아 일어날 것이니 몸을 닦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親屬이 和睦하지 못하면 閨門이 乖戾하고 情意가 隔絶될 것이니 집안을 바꾸고자 하여도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대저 治家の 어려움이 治國보다 더한 所以는 家門內에서는 은혜를 숭상하여 義를 掩蔽하기 쉬운 까닭이라고 한다. 이어서 세상 사람들은 진실로 家庭外를 다스리는 데 힘쓴 이는 있지만 그 家庭을 處理함에 이르러서는 혹은 妻妾의 私情에 押紐하기도 하고 혹은 骨肉의 愛情에 이끌리기도 하여 正으로써 自身을 檢束하는 이가 적은데 君主는 더욱 甚한 편이었다는 것이다. 漢高帝는 能히 秦나라를 討誅하고 項羽를 滅亡시켰음에도 能히 姬와 如意의 寵愛를 끊어버리지 못하였고 唐太宗은 能히 隋나라를 取하고 群盜를 물리쳤지만 閨門의 慙德은 免하지 못했었다 대개 疏遠하면 公道를 行하기 쉬어도 親近하면 私情에 빠지기 쉬우니 이것이 그 어려운 所以이다 그 어려운 것을 먼저 行하지 아니하고 그 쉬운 것을 行한 이는 있지 않았으니 漢·唐의 君主가 根本을 세우고 準則을 마련하는 것이 이미 이와 같은진대 그 天下 다스리는 것이 三代에 미치지 못한 것을 어찌 怪異하게 생각할까 대저 女子의 陰柔한 天性은 妬忌하고 奸邪하고 阿諛하지 않는 이가 적은 까닭으로 두 女子가 同居하면 猜忌와 離間이 생기기 쉬운 것이다. 堯임금이 舜을 시험하고자 하여 반드시 二女를 내린 것은 二女를 能히 편안하게 處하게 할 수 있다면 天下도 能히 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舜의 몸이 바르고 家庭에 模範됨이 이와 같았으니 그런 까닭으로 堯임금은 天下로써 禪讓하면서도 의

심하지 아니하였다. 몸이 바른 것은 그 마음이 정성스러운데 基因하게 되니 誠이란 것은 天理의 眞이고 妄은 人爲의 僞니 妄을 버리면 誠은 있게 된다(存)는 것이다. 誠이 保存되면 몸이 바르게 되고 몸이 바르면 집(家)이 다스려지게 되니 이것을 天下에 미루어 다스려도 손바닥을 뒤엎는 것같이 쉽게 된다. 周敦頤의 말은 깊고 아름답다⁴⁴⁾고 眞德秀는 말한다. 그리고 또 다음을 인용하고 晦齋는 按察하고 있다.

곧 十室의 邑에 사람마다 간곡히 가르치더라도 미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天下의 億兆蒼生의 많음에 있어서라. 그 마음을 純粹하게 할 뿐이다. 마음이 純粹하면 賢才가 輔佐할 것이고 賢才가 輔佐하면 天下가 다스려 질 것이니 마음을 純粹하게 하는 것이 艱요하며 賢人을 任用하는 것이 急한 것이라고 한다

이를 晦齋는 衍義하기를 純이라는 것은 雜되지 않는 것을 이름이라 하고 君主의 마음이 天理의 公에 純粹하고 人欲의 私가 섞이지 않는다면 天下의 賢才가 기꺼이 任用되어 德業을 輔佐하고 教化를 宣布할 것이니 사람마다 教諭하지 않더라도 天下가 다스려 질 것이라고 한다. 이어 만약 혹시 조금이라도 私意邪念의 雜됨이 있으면 좋아하고 미워함이 公正하지 못하여 人材를 쓰고 버리는 것이 顛倒될 것이니 어찌 賢人을 任用하여 教化를 宣布하겠느냐고 한다.

다음에 程子の 說을 引用衍義하고 있다. 程子가 말하기를 君主의 道는 至誠仁愛로써 根本을 삼는다고 하였다 또 大要는 마음을 바꾸고 私欲을 막으며 賢人을 求하고 人材를 養育하는 것을 먼저 한다고 하였다 또 治道의 要領은 세가지가 있으니 뜻을 세우는 것, 責任을 지는 것, 賢人을 求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말하기를 天理의 바름(正)을 얻고(得) 人倫의 至極한 것을 다한 것은 堯舜의 道이고 그 私心を 써서 仁義의 偏僻된데 依據한 者는 霸者의 일이다. 王道는 평평하여 人情에 根本하고 禮義에서 나왔으므로 大路를 밟아 行하듯 하여 回曲된 바가 없다. 霸者는 굽은길 가운데서 崎嶇反側하여 마침내 堯舜의 道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誠心으로 王道를 하면 王天下가 된다. 힘으로 仁義를 빌려 霸道를 취하면 霸者가 되는 것이다. 二者는 그 道가 같지 않으니 그 始初를 살피는 데 있을 뿐이다. 易經에 所謂 처음에 조금 틀리더라도 나중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니 그 始初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때문에 天下를 다스리는 者는 반드시 먼저 그 뜻을 세울 것이니 바른 뜻을 먼저 세우면 邪說이 能히 마음을 옮길 수 없으며 異端이 能히 疑惑할 수 없다. 그때문에 道에 力進해서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晦齋는 衍義하기를 荀子는 純粹하여 王道가 되고 雜駁함으로써 霸術이 된다 하였으니 君主는 臨政하는 初期에 마땅히 먼저 王道와 霸術의 나누어짐의 말미암는 바를 살펴야 한다. 몸과 마음에 근본하여 家·國·天下에 미치게 되는 것은 王道의 純粹한 所以이고 仁과 義를 빌려서 一時의 功利만을 서두르는 것은 霸術의 雜駁한 所以이다. 君主가 만약 혹시 卑近한

44) 夫女子陰柔之性鮮不妬忌而險賊者故二女同居則猜間易生堯欲試舜必降以二女者能處二女則能處天下不矣舜之身正而刑家如此故堯禪以天下不疑也身之所以正者由其心之誠誠者無他不善之萌動于中則亟反之而已誠者天理之眞忘者人爲之僞妄去則誠存矣誠存則身正身正則家治推之天下猶運之掌也敦頤之言淵乎哉 《中庸九經衍義》卷之一眞德秀曰條

데 편안히 여겨 王道에 뜻을 두지 않는다면 마침내 善治를 할 수 없다 그 때문에 程子是 立志로써 治道의 先務로 삼았던 것이다. 대개 君主가 뜻을 세우지 않으면 아침에는 부지런하다가도 저녁때는 게으르게 되고 잠시 일하다가 이내 쉬게 되어 正念은 날로 사라지고 私欲은 날로 자라나게 되며 近規에 紐滯되고 來說에 遷惑될 것이니 어찌 족히 政治를 할 것인가⁴⁵⁾ 하였다. 그리고 晦齋는 또 程子의 說을 引用考察하고있다.

곧 程子는 또 政治를 論하는 者는 體本을 아는 것이 貴重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修身齊家하여 平天下에 이르는 것은 政治의 道이고 綱紀를 建立하고 百職을 分正하고 天命에 順應하여 일을 揆度하고 制度를 創立하여 天下의 일을 다하는 것은 政治의 法이니 法이란 것은 道의 用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또 王者는 朝廷위에 높이 팔장만 끼고 있어도 教化는 溥海의 바깥까지 行하게 되니 무엇을 꾸며서 이것을 이루었겠는가. 純粹한 王道의 마음으로써 純粹한 王道의 政治를 行한 때문이다. 내집 늙은이를 늙은이로 섬겨서 남의 집 늙은이에게 미치게하며 내집 어린이를 자애하는 것을 남의 집 어린이에게 미치게 하는 것은 純粹한 王道의 마음이고 늙은이로 하여금 그 奉養을 얻도록 하고 어린이로 하여금 그 곳을 얻게 하는 것은 純粹한 王道의 政治이다. 오히려 그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또 國老를 높혀서 몸소 섬기고 庶老를 優待하여 때로 기루게 되면 風教가 流行하여 백성이 그 德化에 感化될 것이니 누가 아버지 섬기기에 게을리하며 어른에게 거만하게 대할 者가 있으리요. 虞, 夏, 商, 周代의 盛時에는 王者는 이 道를 따라했으므로 人倫이 바로잡히고 風俗이 敦厚하여 鰥, 寡, 孤, 獨이 그 養育을 얻지 못한 이가 없었으나 後世에 와서는 禮法이 廢毀되고 教化가 밝지 못하여 늙은 이를 버려서 굶주리고 추워서 길거리에 죽은 者가 往往이 있었다. 嗚乎라. 이것이 이대로 가면서 王道를 成就하고자 하는 것은 뒤로 行하면서 앞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과 같고 그보다 더 심한 편이라 한다 또 安危의 근본은 人情에 있고 治亂의 기틀은 일의 始初에 매어 있으니 衆人의 마음이 乖離되면 말을 하여도 믿지 않으며 萬邦이 協和하면 하는 일이 반드시 成就될 것이라 한다

또 事物이 각자 그 곳이 있으니 그 곳을 얻으면 安定되고 그 곳을 잃으면 悖逆하게 되는 것이다. 聖人이 能히 天下를 順治하는 所以는 能히 事物을 위하여 準則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각기 그 處所에 그치게 할 뿐이니 그치는 것이 그 處所를 얻지 못하면 그치게 할 道理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晦齋는 이르기를 天下의 事物이 각기 그 곳이 있으니 곳이란 마땅히 그쳐야만 될 곳이라고 하고 一身으로 말하면 마음은 마땅히 恭敬에 그치고 容貌은 마땅히 莊嚴한데 그쳐야 하고 一家로 말하면 아버지는 마땅히 인자(慈)에 그치고 아들은 마땅히 孝에 그치고 兄은 마땅히 友愛에 그치고 아우는 마땅히 공손함(恭)에 그치고 남편은 마땅히 義에 그치고 아내는 마땅히 순함(順)에 그쳐야하고 天下로 말하면 君主는 마땅히 仁에 그치고 臣下는 마땅히

45) 臣按荀子曰 粹而王駁而霸人主臨政之初宜先審王道霸術之所由分本於身心而及於家國天下者王道之所而粹也假仁與義而急於一時之功利者霸術之所以雜也人君如或安於卑近而不志於王道則終無以爲善治故程子以立志爲治道之先務蓋人主志不立則朝勤而夕怠作而作息正念日消而私欲日長紐滯於近規遷惑於來說何足以爲治乎 《中庸九經衍義》卷之一

忠에 그치고 君子는 마땅히 안(內)에 그치고 小人은 밖(外)에 그쳐야 된다고 하고 다만 그치는 것이 각기 그 곳을 얻는 것만이 天下國家의 順治되는 所以이니 그침이 혹시 그 곳을 잃으면 어지러워지는 것이라⁴⁶⁾고 한다.

다음으로 程子の 말을 引用하여 衍義하고있다. 程子는 말하기를 先王의 세상에는 道로써 天下를 다스렸는데 後世에 와서는 다만 法만으로써 天下를 쥐고있다고 한다.

또 말하기를 聖王이 政治할 적에는 教化를 밝혀서 風俗을 아름답게 하고 刑罰을 닦아서 衆心을 整齊시켰으니 刑罰이 서면 教化가 行하게 되고 教化가 이루어지고는 刑罰은 둔다(拱). 비록 德을 숭상하고 刑은 숭상하지 않는다 하지마는 도리어 어찌 德만 숭상하고 刑은 폐지할 것인가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은 다스려진 原因이 있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어지러워진 原因이 있으니 그 原因은 사람에게 있을 뿐이라고 한다. 또 다스리는 데는 體가 있고 다스림을 펴는 데는 차례가 있다. 參酌하여 應하는 것이 때에 臨하여 마땅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范祖禹가 말하기를 書經에 이르기를 임금(元首)이 밝으면 臣下(股肱)가 어질어 못일이 편안하게 된다. 또 이르기를 임금이 煩碎하면 臣下가 懈怠하여 萬事가 떨어진다(墮)고 하였으니 이것은 舜임금과 皐陶가 노래를 이어 서로 경계한 바이다고 한다. 대저 君主는 知人으로써 밝게 되고 臣下는 職務를 맡아 책임을 짐으로써 어질게 되니 君主가 知人하면 賢者가 그 배운 바를 行하게 되고 臣下가 任職하면 不賢者는 朝廷에 苟且스럽게 容納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庶事가 平安하게될 所以이다고 范祖禹는 말하고 있다. 이어서 말하기를 만약 君主가 臣下의 職任을 行하게되면 煩碎하게되고 臣下가 君主의 일을 맡아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懈怠하게되니 이것은 萬事가 떨어지는(墮) 所以라는 것이다. 舜임금 當時에 禹임금은 水土를 다스리고 后稷은 百穀을 씨 뿌리었으니 土穀의 일은 舜임금이 親히 하지 않았으며 契는 五教를 펴고 皐陶는 五刑을 밝혔으니 教, 刑의 일은 舜임금이 다스리지 않았으며 伯夷는 禮를 말고 夔는 樂을 맡았으니 禮樂의 일은 舜임금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益은 山澤을 맡는 虞官이 되고 垂는 百工의 일을 맡는 共工이 되었으니 虞官과 共工의 일은 舜임금이 알지 아니하였다. 禹임금은 한 宰相이 되어 百官을 거느리고 后稷以下는 分職하여 듣는다 君主인 者는 하늘이 위에서 運行하매 四時寒暑가 각기 그 차례를 맡는 즉 수고로움이 없이 萬物이 삶을 영위하는 것과 같다. 君主는 편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스리는 바는 크더라도 맡은 바는 要緊한 것이고 臣下는 수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스리는 바는 적더라도 맡는 바는 詳細한 때문이다. 밝지 못한 君主는 能히 사람을 알지못한 까닭으로 살피기만 힘쓰고 의심이 많으니 한 사람의 몸으로 百官의 하는 바를 대신코저 한다면 비록 聖智일지라도 또한 힘이 不足할 것이다. 그때문에 臣下는 일의 크고 작은 것을 다 임금에게 돌리고 政治에 得失이 있으면 그 근심과 재난은 책임지지 않

46) 臣接天下之物各有其所所當止之地也以一身言之心宜止於敬容宜止於莊以一家言之父宜止於慈兄宜止於孝兄宜止於友弟宜止於恭夫宜止於義婦宜止於順以天下言之君宜止於仁臣宜止於忠君子宜止於內小人宜止於外惟止之各於其所此天下國家之所由順治也止之或失其所則亂矣(《中庸九經衍義》卷之一)

으므로 賢者는 그 뜻을 행할 수 없고 持祿하는 者만이 그 벼슬자리를 保全하니 이것이 天下가 다스려지지 않은 所以라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易에 이르기를 「吉凶者는 貞勝者也」니 天地之道는 貞觀者也」오 日月之道는 貞明者也」오 天下之動은 貞夫一者也」라」한다.

곧 善에 對해서 吉이 惡에 對해서 凶이 報答하는 것이 바른 常道인 貞이다. 그러므로 吉凶이란 그와같은 常道가 이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天下之事가 吉이 아니면 凶이고 또 凶이 아니면 吉이라 할 수가 있으나 언제나 吉凶이 常存, 共存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기고 있으니 이것을 貞勝이라고 한다.) 그것은 마치 天地의 運行이 그 恒常性을 가지고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과 같다. 또 日月의 本質이 항상 밝은 것을 가지고 下界를 비치는 것과 같다. 天地의 運行, 日月의 밝음은 때로 어긋남이 있어도 그것은 常道を 뒤엎을 수는 없다 마치 한가지로 天下의 일의 움직임은 저 하나의 道理, 善에 對해서는 吉, 惡에 對해서는 凶이라는 理致를 가지고 올바른(正) 常道を 삼는 것이다. 或은 天地의 道와 日月의 道는 宇宙大自然을 뜻하는 것이고 이속에 살아가는 人間에 대한 것을 天下之動이라고 하였는데 이속에 움직이는 그 內面에는 變化가 있고 이 變化하는데 吉凶禍福이 숨어 있는 것이다. 或은 正히 대체로 하나(貞夫一者)는 太極을 가르친다고 말하기도 한다.⁴⁷⁾

朝廷이라는 것은 四方의 표준이니 지극히 公평하지 않으면 天下의 私를 쫓을 수 없으며 지극히 바른것이 아니면 天下의 邪를 막을 수 없다. 君主가 한번 그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면 萬事를 바로 잡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術策으로써 아래사람을 制御하면 이는 스스로 詐欺하는 것이니 어찌 臣下의 欺瞞을 禁할 수 있으리요. 이로써 術策을 行함으로써 속임은 더욱 많게 되고 智慧를 씀으로써 마음은 더욱 수고로울 것이니 대개 詐欺를 이겨낸다면 能히 서로一心이 되지 못할 것이다. 禮記에 이르기를 君王은 그 中心 곧 마음은 하는 것이 없고 至正을 지킨다 하였다. 대체로 오직 正은 기만할 수 없으며 기만하면 버림을 免치 못할 것이니 어찌 이것이 簡約하여 遵守하기 쉬운것이 아니리요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天下의 煩雜한 것을 다스리는 者는 반드시 至簡으로써 하고 天下의 움직이는 것을 制御하는 者는 반드시 至靜으로써 한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號令이 簡略하면 백성의 聽從함이 疑惑되지 않고 心慮가 安靜하면 事變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能히 成功하는 所以라는 것이다

또 이르기를 백성은 危殆함을 싫어하고 편안함을 欲求하며 勞苦를 싫어하고 쉬고저하지 않는이가 없으니 仁義로써 다스리면 백성이 順從하고 刑罰로써 다스리면 어긴다(拂). 그 때문에 天下가 다스려진다는 것은 順從하는데 있고 어기는데(拂之) 能히 다스려진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

위와같이 范祖禹의 說을 引用하여 衍義한다음 또 胡의 말을 引用하여 衍義하고 있다.

47) 吉凶者는 貞勝者也」니 天地之道는 貞觀者也」오 日月之道는 貞明者也」오 天下之動은 貞夫一者也」라 (繫辭下一章)

胡宏은 말하기를 天下에 세가지 큰것이 있으니 大本과 大幾와 大法이라는 것이다. 大本은一心이고 大幾는 萬變이고 大法은 三綱이라고 하고 大本이 있어야만 天下를 領有할 수 있으며 大幾를 보아야만 天下를 取할 수 있으며 大法을 行하여야만 天下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君主가 能히 天下로써 自任하면 皇天上帝가 天下를 주는 것이다. 君主가 上代列聖의 盛德大業을 좇아서 스스로 期約한다면 天下의 仁인이 다투어 補佐할 것이며 君主가 自身만을 奉養하지 않고 天下를 保養하는 것을 일삼는다면 天下의 黎民이 다투어 우러러 받들 것이다.

위로는 天心을 얻고 中으로는 聖賢의 마음을 얻고 아래로는 億兆蒼生의 마음을 얻는다면 이것을一心이라 이르게 되니 마음이 하나가 되면 天下도 하나가 될 것이다. 天下의 變은 無窮함으로 그 大幾가 네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弊端을 救濟하는 幾이고 둘은 사람을 쓰는 幾이고三是 敵軍에 對應하는 幾이고 四는 軍士를 行進시키는 幾이다. 幾가 움직이는 變動不測함으로 먼저 도모할 수 없으니 반드시 寂然不動하여야만 能히 對應할 수 있는것이다. 그 大法은 세가지 있다. 하나는 君臣의 法이고 둘은 父子의 法이고 三은 夫婦의 法이다. 夫婦가 法이 있어야만 家道가 바로 잡히고 父子가 法이 있어야만 人道가 오래가고 君臣이 法이 있어야만 天地가 泰平하고 天地가 泰平한 것은 禮樂이 일어나는 所以이다. 禮樂이 일어나야 賞罰이 的中하여 庶民이 편안하게 될 것이라고⁴⁸⁾ 胡宏이 말한다

胡宏의 말에 이어 羅從彥의 說을 引用하여 衍義하고 있다. 곧 羅從彥은 말하기를 三代(夏殷周)의 政治는 道에 있고 法에 있지 않았으며 三代之 法은 實을 소중히 여기고 名을 소중히 여기지는 않았는데 後世에 와서는 이와 反對되었으니 이것이 享國과 治安이 갈지 않는 所以라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教化라는 것은 朝廷의 先務이고 廉恥는 士人의 美節이며 風俗은 天下의 大事라는 것이다 그리고 朝廷에 教化가 있으면 士人이 廉恥가 있고 士人이 廉恥가 있으면 天下에 風俗이 있는 것인데 혹시 朝廷에서 教化는 힘쓰지 않으면서 士人이 廉恥있지만 마라고 士人이 廉恥는 숭상하지 않으면서 風俗의 아름답기만 바란다면 그것이 되겠는가 하고 한다.

또 말하기를 仁義라고 하는것은 人主의 術이니 仁에만 한결같으면 天下가 사랑할줄은 아는데 두려워할줄은 알지 못하게 되고 義에만 한결같으면 天下가 두려워하지만 사랑할줄 모른다.

三代之 君主는 仁과 義가 아울러 隆盛했으므로 享國이 長久하였고 漢代以後로는 그 하나에만 치우치게 되니 漢文帝는 仁에만 지나치고 漢宣帝는 義에만 지나쳤던 것이다. 대저 仁은 지나쳐도 되지마는 義는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한다.

李侗은 말하기를 治道는 반드시 天理를 밝히고 人心을 바로잡고 節義를 숭상하고 廉恥를 勸勉하는 것을 먼저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周子의 說을 引用하여 衍義하고 있다.

周子는 말하기를 天下의 일은 本末 곧 根本과 末端이 있다. 그 根本을 바로잡는 者는 비록

48) 其大法有三一曰君臣之法二曰父子之法 三曰夫婦之法 夫婦有法然後家道正父子有法然後人道久君臣有法後天地泰天地泰者 禮樂之所以興也禮樂興然後賞罰中而庶民安矣 《中庸九經衍義》卷之一, 胡宏曰錄)

迂廻緩慢한것 같으나 실상은 힘쓰기가 쉬우며 그 末端을 두둔하는 者は 비록 切緊至近한 것 같으나 실상은 功이 되기 어렵다. 이로써 옛날에 論事를 잘하는 者は 반드시 本末의 所在를 깊이 밝혀서 그 本을 먼저 바로 잡았던 것이나 根本이 바르게 되면 末端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근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르기를 天下의 萬事가 큰 根本이 있고 每事 가운데 또 각기 「要切處」가 있는 것이다. 이른바 큰 根本이라는 것은 진실로 君主의 心術에 벗어나지 않으며 이른바 「要切處」라는 것은 반드시 大本이 이미 선 다음에 미루어 볼 수 있다 賢相을 任用하고 私門을 막는 것은 政治하는 要道이고 良吏를 가리고(擇) 賦役을 輕減하는 것은 養民의 要道이며 將帥를 公選하고 近習을 經由하지 않는 것은 治軍의 要道이고 警戒함을 듣기 좋아하고 導諫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聽言用人의 要道이니 이 數端을 미루어 나가면 나머지는 모두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大本이 서지 않고 이에 더불어 할 것은 있지 않으니 이것이 옛날의 天下를 다스리고자한 者は 먼저 正心誠意하여 그 根本을 세우는데 汲汲했던 所以이다 만약 한갓 말로만 正心한다 하면서도 事物의 要道는 알지 못하며 혹은 事情만 자세히 조사하여 밝혀(精覈)도 根本의 歸趣에는 昏昧하게 된다면 이것은 腐儒의 迂闊之論이고 俗士의 功利之談이니 모두 當世의 政務는 족히 의논할 수 없다고 한다.

또 말하기를 天下의 紀綱은 能히 스스로 설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君主의 心術이 公平正大하여 偏黨反側의 私가 없어야만 紀綱이 엮어떨바 있어 서게 되며 君主의 마음은 能히 스스로 바로 잡을 수는 없으니 반드시 賢臣을 親하고 小人을 멀리하여 義理의 歸趣를 講明하고 私邪의 徑路를 閉塞한 연후에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한다.⁴⁹⁾

또 말하기를 옛 聖賢이 다스림에 대해서 말할적에 반드시 仁義로써 먼저하고 功利로서 急務를 삼지 않는 것은 어찌 故意로 이러한 迂闊無用의 談論을 하여 세상을 欺瞞하고 風俗을 眩惑케하여 實禍를 甘受할 것인가. 대개 天下萬事는 一心에 根本하게 되는데 仁이란 것은 이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이른 것이며 이 마음을 이미 간직하고 있으면 能히 節制가 있고 義란 것을 이 마음의 節制를 이른 것이다. 진실로 이 말을 天下에 드러내어 밝게 하면 天子로부터 庶人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그 本心을 얻어 萬事を 마름(制)하여 하나라도 合當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니 무엇이 어려워서 안될일이 있겠는가 하고 있다.

또 말하기를 君主는 論相으로써 職分으로 삼고 宰相은 君主를 바루는 것으로써 職分을 삼으니 그 둘이 각기 그 職分을 다하여야 體統이 바르게 되고 朝廷이 높아지며 天下의 政事가 반드시 한곳에서 나오고 多門에서 나오는 弊端이 없을 것이다

진실로 마땅히 論相者인 君主가 自己마음에 맞는 사람만 求하고 自己 마음을 바루는 사람은 求하지 않고 그 사랑할만한 사람만 取하고 敬畏할 만한 사람은 取하지 않는다면 君主가 그 職分을 잃게 될 것이며 마땅히 君主를 바로 잡아야만 될 者가 善을 도우고 惡을 廢하는 것으로

49) 又曰天下之紀綱不能以自立必人主之心術公平正大無偏黨反側之私然後紀綱有所繫而立君心不能以自正必親賢臣遠小人講明義理之歸閉塞私邪之路然後乃可得而正 《中庸九經衍義》卷之一, 朱子曰條

써 일삼지 않고 趨和하여 뜻을 받드는 것만을 能事로 삼으며 세상을 다스리고 事物을 마음(制)하는 것으로써 마음먹지 않고 自身을 편안히 하고 굳게 寵愛하는 것으로써 術策을 삼는다면 宰相이 그 職分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한다 君主와 宰相이 번갈아 그 職分을 잃는다면 이로써 體統이 바뀌어지지 않고 綱紀가 서지 아니하여 左右近習이 다 威權을 竊弄하고 賣官 鬻獄하여 政體가 날로 어지러워지고 國勢가 날로 떨어지게 될 것이니 비록 非常한 禍가 드러나지 않고 어둠속에 潛伏해 있더라도 上下가 편안하고 즐거워해서 또한 念慮할 줄도 모르게 된다. 이것은 그 所以然을 살펴서 바르게 돌이켜 이미 任用한 者를 淘汰시키고 장차 任用할 者를 살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한다

또 天下의 直諫敢言하는 선비를 公選하여 臺諫과 給舍를 삼아 그 議論에 參與케하여 나의 腹心耳目的 寄托이 항상 어진 士大夫에 있게 하고 群小人에게 있지 않도록 하며 善惡을 黜陟하는 權柄이 항상 朝廷에 있게하고 私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니 이같이 하고도 君主의 威嚴이 서지 않고 國勢가 疆하지 않고 三綱과 四維(禮·義·廉·恥)가 振作되지 않고 刑政이 맑지 않고 民力이 넉넉하지 않고 軍政이 닦아지지 않다는 것은 나는 믿지 못하겠다⁵⁰⁾고 한다.

書經 酒誥篇에 이르기를 「成王畏相」 곧 王業을 이루고 宰相을 공경했다. 두려워했다고하며 語(항다반하는말)에 私臣은 忠誠하지 않는다고 하며 또 唐太宗같은 聰明英特한 이도 號하되 몸소 將相을 兼했다고 하나 반드시 天下의 일은 宰相에게 關由시켜 審鑒 便宜한 뒤에 施行하였으니 대개 理勢의 當然한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이른 것이라고하고 있다.

그리고 綱紀라는 것은 무엇을 이르는가 綱紀라는 것은 賢否를 辨別하여 上下의 區分을 定하고 功罪를 자세히 하여 賞罰을 公正히 施行하는 것이라고 周子は 말하고 있다. 또 風俗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다 善을 사모하여 반드시 해야만 될 것을 알게하고 不善을 羞恥로 여겨 반드시 버려야만 될 것을 알게하는 것이다 하니 周子の 風俗의 概念은 善俗을 가르키고 있다.

또 周子는 管子와 賈誼의 말을 引用하여 自說을 덧붙임하고 있다. 管子는 禮·義·廉·恥를 四維라 하는데 四維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滅亡한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賈誼는 일찍이 漢文帝를 爲하여 이 말을 외우면서 管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한다면 옳거니와 管子로 하여금 다스리는 根本를 조금 안다고하면 이것은 어찌 寒心하지 않겠는가 하고 한다.

또 이르기를 天下의 일은 緩急의 形勢가 있고 朝廷의 政務는 緩急의 時宜가 있으니 마땅히 緩하게 할때에 急하게하면 繁細하고 苛察하여 大體를 保存할 수 없음으로써 朝廷의 氣가 舒(舒)지지 않을 것이고 마땅히 急하게 할 때에 緩하게 하면 怠慢하고 廢弛되어 일의 기틀(事幾)을 맞추지 못하여 天下의 일이 날로 무너지게 되니 둘이 다 失策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緩하게 할때에 急하게 한 것도 그 害가 진실로 적지 않지만 마땅히 急하게 할 때에 도리어 緩하게 하면 그 害는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을 살피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라고⁵¹⁾ 하고 있다

50) 主威不立國勢不疆綱維不舉刑政不清民力不裕軍政不修者吾不信也(上同)

51) 愚以爲當緩而急者其害固不爲小若當急而反緩則其害有不可勝言者不可以不察也(上同)

그 다음으로 魏華父, 許衡, 潘榮의 말을 引用하여 衍義하고 있다

魏華父는 말하기를 三代로 부터 以來로 王政이 밝지 못하여 天下에 善治가 없었다고 하고 紀綱을 밝히지 못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許衡은 말하기를 古今의 立國한 規摹는 비록 각기 같지 않더라도 그 大要是 天下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있으니 天下사람의 마음을 얻는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랑과 公偏뿐이라는 것이다 사랑하면 民心이 順해지고 公偏되면 民心이 服從할 것이니 이미 順해지고 服從하면 政治하는데 무엇이 어렵겠느냐 한다. 그러나 開創한 始初에는 重臣이 功을 믿고 制御하기 어려움으로 나의 公偏을 妨害하고 小民이 雜屬하여 合一되지 않는다. 英睿한 君主와 賢良한 輔佐가 아니면 쉽게 處理할 수 없다는 것이다.

潘榮은 말하기를 天下를 다스리는데 道가 있으니 賢人을 親하고 姦人을 멀리하여 밝을 다름이며 天下를 다스리는데 法이 있으니 信賞必罰하여 決斷할 뿐이며 또 天下를 다스리는데 根本이 있으니 禮樂과 教化를 順하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밝으면 君子는 나아가고 小人은 물러날 것이며 決斷하면 功있는 者는 勸獎되고 罪있는 者는 懲戒될 것이며 順하게 되면 萬事가 和平하게 된다. 三者의 要領은 몸에 있으니 몸이 바르면 마음이 정성스러워지고 숨을 내리지 않아도 行하여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堯舜三代의 治는 純全히 禮樂을 써서 教化가 크게 行하여 말하지 않아도 믿고 怒하지 않아도 威嚴이 있고 힘들이지 않아도 다스려졌다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晦齋先生은 周子 程子 그리고 諸子의 論說이 帝王의 政治하는 規範과 出治의 根源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이 없으므로 記錄하였다는⁵²⁾ 것이다.

2 天下國家를 다스리는 根本인 修身에 관한 總論 (總論修身之道) (修身一)

先生은 「總論修身之道를 論함에 있어서 《書經》의 虞書, 洪範, 《大學》, 《中庸》, 《論語》, 《孟子》에서 그리고 唐太宗의 말을 引用하고 程子, 朱子, 眞德秀, 丘濬, 張栻의 註釋을 달아 按察하고 있다

皐陶謀에 이르기를 「삼가 그 몸을 닦으며 생각을 길게하고 九族이 돈독하고 질서 있으며 여러 밝은 신하들이 힘써 도우면 가까운데를 미루어 먼 곳에 미치어 잘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여가 있다」⁵³⁾고 하였다.

眞德秀는 이르기를 皐陶가 舜임금을 위해서 피(謀)를 陳述하는데 다른 일에는 言及하지 않고 먼저 삼가 그 몸을 닦는것으로 말하니 대개 君主의 一身은 實로 天下國家의 根本이고 삼가 한다는 한마디 말은 또 修身의 根本이라는 것이다. 「思永」이라는 것은 悠久하여 不息코저 하는 것이다. 임금된 者 누가 몸을 당연히 닦을것을 알지 못하리요마는 이 마음을 한번 내친(放)즉 能히 暫間은 되어도 能히 오랜것이 반드시 될 수 없다 항상 삼가하기를 생각하여 오늘은 이

52) 臣按周程以不諸子之論於帝王爲治之規出治之源無所不備故錄焉(上同)

53) 日若稽古皐陶한대 曰允迪厥德하면 謨明하며 弼諧하리이다. 禹曰俞!라 如何오皐陶曰都!라 慎厥身修하며 思求하며 惇叙九族하며 庶明이 勳賢하면 邇可遠이 在茲하니이다 禹拜昌吉曰俞!라 《虞書》皐陶謀

같이 하고 來日도 또한 이같이 하여 아니든지 이같이 하지 않음이 없게 할 것이니 이리해야만 永이라 이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는 부지런하다가도 저녁에는 게을리하게 되며 잠깐 일하다가도 문득 그치게 될 것이니 과연 무엇이 有益하겠는가. 後世의 君主는 始初에는 잘하는 이가 있어도 끝까지 잘하는 이가 적은 것은 「思永」의 뜻을 알지 못한 때문이다. 삼가하면 항상 공경하여 疏忽함이 없으며 생각하면 항상 存省하여 放恣함이 없을 것이니 修身의 道가 여기에 具備된다. 그런뒤에 親한 이를 親하고(親親) 어진이를 어진이로 섬기는(賢賢)二者로써 이어진다.

九族은 나의 屏翰이니 반드시 篤叙하여 그 恩惠를 均霑하게 할 것이며 衆賢은 나의 羽翼이니 반드시 勸勵하여 나를 돕게 할 것이다. 몸을 根本이 되게 하고 親親賢賢二者가 또 각기 그 道를 다하게 되면 집(家)으로부터 미루어 나라(國)에 맞이고 나라(國)로부터 미루어 天下에 맞게 되니 그 道가 이에 있을뿐이다. 中庸九經의 차례도 그 또한 으뜸이 되는 바가 있다.

이에 대해서 晦齋先生은 按察하기를 帝王의 齊家, 治國, 平天下의 根本이 모두 修身에 있기 때문에 皐陶가 舜임금에게 꾀(謀)를 陳述할 적에 먼저 이에 言及한 것이라고 한다.

대체로 舜임금은 大聖의 資質로서 德이 다 갖추어져 있고 몸이 닦아지지 않음이 없었으니 스스로 天下에 모범이 될 것인데 어찌 반드시 남의 나수는 말(進言)을 기다리겠는가.

대개 君主는 一身이 天位 곧 임금의 地位의 尊嚴한 자리에 處하여 萬邦의 表率이 되었으니 一動一靜을 上帝가 監視하여 休咎의 應이 있고 一言一行을 萬民이 觀聽하여 좃고 거스림의 徵驗이 있기 때문에 비록 聖哲의 君主로서도 그 修身을 삼가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옛적 盛世의 君主사이에 서로 吁咈하면서 規戒함을 잊지 않았던것은 대개 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⁵⁴⁾

다음으로 引用한 것은 「洪範」이다. 「洪範」은 큰 법이라는 뜻으로 周書의 한 篇名이며 箕子의 陳述한 바이다.

晦齋先生은 天下國家를 다스리는 근본으로써 修身之道를 總論하는 데 「皐陶謨」에 이어 「洪範」을 引用하여 朱子와 眞德秀, 丘橈의 說을 부치고 있다

洪範에 「다섯째 皇極은 임금이 표준을 세우는 것이니 五福을 모아 그 못 백성에게 퍼서 주면 이에 그 못 백성이 너(君主)의 표준에 좇아서 너(君主)에게 표준을 보전함을 주리라

무릇 그 못 백성이 遙明을 듣지 아니하며 有位의 人士가 자기와 親한 무리를 위하여 行動함(比德)이 없는 것은 오직 임금이 표준을 행하여 하여금 바른 것을 取한 바 있기 때문이다.

넉금이 표준으로 퍼는 말은 이것이 天下의 常理이며 天下의 大訓이니 넉금의 訓戒가 아니라 上帝의 訓戒이다

무릇 그 못 백성이 표준을 퍼는 말을 이에 訓戒하며 이에 行하면 天子道德의 빛에 가까와져서 이끄기를 天子 백성의 父母되어서 天下에 넉금이 된다 할 것이니 父母라 함은 그 기르는

54) 《中庸九經衍義》卷之二修身一)

은혜를 말함인 데 親한 뜻이오 님금이라 함은 다스리는 德을 말함이니 높이는 뜻이라」⁵⁵⁾하였다.

여기에 朱子說을 부치고 있는데 朱子는 이르기를 「皇이라는 것은 君主를 일컫는 것이라 하고 「極이라는 것은 至極의 뜻이며 標準이라는 이름이니 항상 事物의 中央에 있어 四外에서 이를 바라다 보고 取正하는 것이라고 한다.

君主는 一身으로 至尊한 자리에 處하고 있어 四方에서 輻湊하여 안으로 面하여 環視하게 되니 東으로부터 바라보는 者도 이를 지나서 西를 바라볼 수 없으며 南으로부터 바라보는 者도 이를 지나서 北을 바라볼 수 없으니 이것이 天下의 至中이라는 것이다

이미 天下의 至中에 居하면 반드시 天下의 뛰어난 德이 있어야만 至極한 標準을 세울 수 있다. 그 때문에 반드시 五行을 順하게 하고 五事を 公경하여 그 몸을 닦고 八政을 厚하게 하고 五紀를 協和케 하여 그 政事を 整齊시켜야만 至極한 標準이 卓然히 天下의 至中에 서서 대저 안으로 面하여 環視하는 者를 하여금 이에서 法則을 取하지 않는 이가 없게 한다.

그 仁을 말한다면 天下의 仁을 다함으로써 天下의 仁하는 者가 能히 더할 수 없게 하고 그 孝를 말한다면 天下의 孝를 다함으로써 天下의 孝하는 者가 能히 더할 수 없게 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皇極이라는 것이다. 「皇建其有極이라고 하는 것은 君主가 그 一身으로써 至極한 標準을 天下에 세우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 「斂時五福用錫敷庶民이라고 하는 것은 君主가 能히 그 極을 세우면 五福의 모인 바가 될 것이고 또 백성들에게 觀感하여 行하게 하면 이것은 또 能히 이 福을 베풀어 그 백성에게 주게 되는 것을 이름이다. 그 「凡厥庶民無有滯朋人無有比德惟皇作極이라고 하는 것은 못 백성이 能히 이 德이 있게 된 것은 모두 君主의 德이 至極한 標準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皇極之敷言是彝是訓于帝其訓이라고 한것은 君主가 몸소 標準을 세워 아래사람에게 布令한다면 天下의 常理가 天下의 大訓이 되는 것은 모두 天理로서 上帝가 내린 떳떳한 理致라는 것이다. 그 「凡厥庶民極之敷言是訓是行以近天子之光이라고 하는 것은 天下人이 君主의 命令한 바에 모두 그 敎訓을 받아서 삼가 行한다면 이는 能히 스스로 絶遠되지 않음으로써 그 道德의 光華를 입은 것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 「天子作民父母以爲天下王이라고 하는 것은 君主가 能히 至極한 標準을 세워 億兆蒼生의 父母가 되고 天下의 王이 됨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位는 있어도 그 德은 없으므로 足히 萬物위에 倅어난 地位에 나와서 天下의 極尊의 자리에 處하지 못할 것이다. 이 洪範은 하늘이 원래 禹임금에게 내려준 것으로 비록 그 茫昧幽眇하여 알지 못할 점이 있으나 그러나 箕子가 武王에게 告한 것은 이미 具備된 것이었다 다만 先儒들은 君主의 修身立道の 根本인 것을 살피지 못하였기 때문에 「皇極을 誤訓 「大中이라 하고 또 「其詞를 보매 含用寬대한 말이라고 하고 다시 「中을 「含胡苟且不分善惡의 뜻으로 認定하였으니 이것은 極히 비록 中에 居하

55) 五皇極은 皇이 建其有極이니 斂時五福하야 用數錫厥庶民하면 惟時厥庶民이 于汝極에 錫汝保極하리라

凡厥庶民이 滯朋하며 人無有比德은 惟皇이 作極일새니라

日皇極之敷言이 是彝是訓이니 于帝其訓이시니라 凡厥庶民이 極之敷言을 是訓是行하면 以近天子之光하야 曰天子 作民父母하사 以爲天下王이라 하리라 《書經》周書洪範

라도 中의 뜻을 取하지 아니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또 그 過와 不及이 없고 至精至當하여 毫釐의 差가 없다고 하나 또한 그 指稱하는 바와는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誤認한 「中」으로 誤訓의 極으로 하여 至嚴至密의 體에 謹慎하지 않으면서 至寬至廣의 量으로 삼으려고 하니 그 弊端이 장차 君主로 하여금 몸을 닦아 立政할 줄은 알지 못함으로써 漢元帝의 優游와 唐太宗의 姑息으로 떨어져서 마침내 是非가 顛倒되고 賢不肖가 貿亂하여 禍敗가 뒤따르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니 어찌 福을 모아 백성에게 주는 것을 바랄 수 있으리오⁵⁶⁾」고 하였다.

眞德秀는 말하기를 「洪範의 書」는 漢代의 儒者들이 皇極을 「大中」이라 해석하여 後人이 이로 因하여 敢히 가벼히 論議하지 못하고 箕子의 本指가 湮晦된지 數千年이나 되었다. 朱熹는 그 深造自得의 學으로 비로소 君主가 至極한 標準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여 天下를 領有하는 者에게 그 自身이 못 백성의 위에 있으면서 修身과 立政을 반드시 그 至極함을 다하여야만 그 至尊하고 至極한 位에 맞게 됨(稱)을 알게 하였으니 비록 箕子가 復生하더라도 이 말을 고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丘濬은 말하기를 「皇極一疇은 洪範九疇의 關鍵」이라고 한다. 君主는 五倫의 道를 다하여 天下의 標準을 세워서 四方萬姓들로 하여금 모두 이에 模範을 取하도록 하는 것이 所謂 極이다 그러나 그 위에 建立하는 것이 어찌 君主가 홀로 가지는 바이겠는가 대개 天下 모든 사람의 所有인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大學》의 傳 首章을 引用하여 衍義하고 있다 곧 「天子로부터 庶人에 이르기까지 一切 다 修身으로써 根本으로 해야 한다. 그 근본이 어지럽고서 끝이 다스려지는 것은 없으며 厚하게 해야 할 것에 薄하게 하고 薄하게 할 것에 厚하리 있지 아니한다⁵⁷⁾」고 하였다.

朱子는 말하기를 「本」은 몸(身)을 이르는 것이고 「所厚」는 집(家)을 이룸이다 몸(身)으로 天下國家에 對해 말하면 몸(身)은 근본(本)이 되고 天下國家는 末이 되며 집(家)으로 國家와 天下에 對하여 말하면 그 厚理는 비록 同一하나 그 厚薄의 區分은 또한 等差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때문에 能히 格物致和하고 誠意正心함으로써 그 몸을 닦지 않는다면 本은 반드시 어지러워져서 末을 다스릴 수 없게 되며 그 親한 이를 親하지 않고 어른을 섬기지 않는다면 厚하게 할 者에 薄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親長에게 미루어 미치게 할 수 없으니 모두 必然의 理致라 하였다

陳祥道는 말하기를 修身이라고 하는 것은 格物, 致和, 誠意, 正心에서 쌓은 것이니 이같이 하지 않으면 修身이 안된다 修身이 안되면 그 本이 어지러워질 것이니 本이 이미 어지러워진다면 國家를 어찌 다스리겠는가 父母를 섬기면서 能히 孝道하지 못하고 兄長을 섬기면서 能히 公경하지 않는다면 이는 厚하게 할 者에 薄하게 하는 것이니 厚하게 할 者에 오히려 薄하게

56) 乃以誤認之中爲誤訓之極不謹乎至嚴至密之體而爲至寬至廣之量其弊將使人君不知修身以立政而墮於漢元帝之優游唐太宗之姑息卒至於是非顛倒賢否貿亂而禍敗隋之尚何斂福錫民之可望哉 《中庸九經衍義》 卷之二, 朱子曰條 李載浩《國譯晦齋全書》p. 288

57) 自天子至於庶人皆是皆以修身爲本이 아니라 基本이 亂而末治者否矣며 其所厚者에 薄이오 而其所薄者에 厚하리 末之有也」니라 《大學》

한다면 어찌 天下의 親한 이를 親하고 天下의 어른을 섬기기를 바라리오고 하였다

以上과 같이 引用衍義하고 晦齋는 按察하고 있다. 先生에 따르면 天下國家의 根本은 몸(身)에 있기 때문에 옛 聖帝明王이 道를 行하여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저 한 者는 몸으로 부터 始作하지 않는 者가 없었다고 하고 대저 天子이면서 그몸을 닦지 않으면 天下를 教化시킬 수 없으며 諸侯이면서 그몸을 닦지 않으면 그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없으며 大夫와 士庶人이면서 그몸을 닦지 않으면 그 집(家)을 다스릴 수 없으니 그렇다면 天下國家의 治亂이 어느 것이든 몸에 근본하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한다

대개 道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몸에 말미암고 德을 行하는 것은 반드시 집(家)에서 비롯(始)하니 그 몸을 能히 바꾸지 못하면서도 家·國·天下를 다스리고저 하고 그 집(家)을 能히 어질게(仁)하지 못하면서도 四方萬民에게 恩澤을 베풀고저 함은 비유컨대 그 標를 굽게 해놓고 그림자(影)가 바르기를 求하고 그 根源은 涸竭해 놓고서 흐름(流)의 不息을 바라는 것과 같으니 그것이 되겠는가 하고 있다

가령 唐太宗이 天下를 平定하여 太平을 이루었으니 그 功業은 隆盛하였으니 몸을 닦지 아니하고 많은 부끄러움을 行하였던 때문에 子孫이 이를 법받아 짐승처럼 문란하여 마침내 鼎祚를 옮기고 宗支를 剪滅시킨 禍가 있었으니 어찌 根本이 바르지 못한 徵驗이 아닌가하고 있다

唐明皇의 開元의 治는 貞觀의 治에 가까웠으니 아름답다할 수 있으나 嬖寵에惑하여 하루동안에 아들 셋을 죽여 厚하게 할 바에 薄하게 한 것이甚했으니 그 어찌 天下를 保全하겠는가. 얼마안가서 오랑캐(安祿山)의 亂을 誘致하여 나라를 잃고 도망함으로서 만 백성이 悲慘하게 죽었으니 어찌 恩澤이 一家에 枯渴됨으로서 그 禍가 天下生民에 까지 미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그때문에 自身이 道를 行하지 않으면 令이 妻子에게도 行하여 지지 않는다고 또 恩惠를 미루지 못하면 四海를 保全할 수 있고 恩惠를 미루지 못하면 妻子도 保全하지 못할 것이라 하였으니 이를 말한 것이라는 것이다⁵⁸⁾

다음에 《中庸》에서 引用하여 衍義하고 있다 《中庸》에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爲政이 在人 하니 取人以身이오 修身以道」오 修身以仁이니라 仁者는 人也」니 親親이 爲大하고 義子는 宜也」니 尊賢이 爲大하니 親親之殺와 尊賢之等이 禮所生也」니라 故로 君子」不可以不修身이니 思修身인덴 不可以不事親이오 事思親인덴 不可以不知人이오 思知人인덴 不可以不知天이니라」고 하셨다

朱子는 「人」은 賢臣을 이르고 「身」은 君主의 몸을 가르킨 것이라고 한다 「道」라고 하는 것은 天下의 達道이고, 「仁」이라는 것은 天地가 萬物을 生生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얻어 사는 것이니 이른바 元이라는 것은 善의 長이다. (元은 하늘이 萬物을 生生하는 처음이다. 季節로 말하면 봄(春)이고 人間의 德으로 말하면 仁에 해당된다 仁은 사람을 慈愛하는 것이기 때문에 仁은 善의 最高이다. 그러므로 元은 善의 長이라고 한다 元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것(善二天賦

58) 豈非澤竭於一家而其禍遂及於天下生民歟 故曰身不行道不行於妻子又曰推恩足以保四海不推恩無以保妻子其是之謂乎 (《中庸九經衍義》卷之二)

之性)이 길러나는 것)⁵⁹⁾ 君主가 政治하는 것은 賢臣을 얻는 데 있으며 賢臣을 取하기 위한 原則은 내 몸을 닦는데 있으니 궁극적으로 내 몸을 어질게(仁)하는데 成功한다면 이에 어진 임금이 出現하는 것이고 따라서 賢臣도 얻게 되니 政治에 있어서 實現되지 않는 것은 없다. 政治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고 사람을 取하는 것은 몸으로 하기 때문에 몸을 닦지 않을 수 없으며 道로서 修身하고 仁으로써 修道하기 때문에 修身하려고 생각하면 아버지를 섬기지 않을 수 없으며 (예나하면 《論語》에도 「孝弟也者는 其爲仁之本與」⁶⁰⁾저」 하고 있듯이 仁의 實踐의 最初의 段階는 事親以外에는 없기 때문이다). 親親의 仁을 다할려고하면 반드시 尊賢의 義를 말미암아 하기때문에 또 당연히 知人하여야 한다. 그런데 仁에 의해서 修道하고 道에 의해서 修身하는 것은 具體的으로 말하면 事親—좀 廣意로 해석하면 親親—의 실천으로 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事親—親親의 仁의 道를 完全히 行하려고 하면 그 必然的인 補完物로서 尊賢의 義라는 것을 媒介하지 않으면 안된다. 尊賢이라고 하는 義의 厚理를 媒介한다는 것은 단순한 直接的 血緣的인 「同」의 厚理에서 나와 反省的인 「別」의 厚理에 서는것 곧 넓이 「사람」을 아는 것을 意味한다(知人). 親親의 등급과 差等은 다 天理이기 때문에 또 마땅히 知天하여야 된다는 것이다⁶⁰⁾

以上과 같이 朱子說로 衍義하고 晦齋가 按察하고 있다 곧 政治하는 道는 得人보다 먼저할 것이 없으며 사람을 取하는 原則이 없다 그 몸을 닦으려 하면 반드시 親親의 仁에 말미암아야 된다. 親親의 道는 또 知人하는데 있고 사람을 알지 못하면 親한 者가 혹은 其人이 아니며 말미암은 바의 것이 혹은 그 道가 아니어서 自身을 辱되게 하고 아버지를 危殆롭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섬기려고 생각하면 사람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天이란 것은 理致일 뿐이라는 것이다.

君主가 能히 배워서 理致를 밝히지 않으면 또한 사람의 邪正을 알아서 取舍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알려고 하면 天 곧 天理를 모르면 안된다 옛부터 君主의 德을 亂敗시키고 骨肉을 離間시키는 禍는 반드시 小人으로 부터 發端되었으니 江充이 漢나라에 들어와서 巫蠱의 變이 일어났고 李林甫가 宰相이 되어서 武惠妃의 譖訴가 行하여 졌으며 李輔國이 寵任되고 上皇을 옮기고 張后를 죽이는 亂이 일어 났으니 세君主는 혹은 天子의 貴로서도 能히 그 妻子를 保全하지 못했으며 혹은 天下의 大로서도 能히 그 父를 庇護하지 못하였으니 小人을 親近한 禍가 悲慘했던 것이다 이때문에 옛 帝王이 修身正家하는 者는 賢人을 親近하고 姦臣을 멀리하는 것을 먼저하고 成人은 知人하는 것으로 事親修身하는 근본을 삼고 또 知天으로써 知人の 根本으

59) 易 乾卦 文言

60) 人이라는 字는 人間이라는 意味와 사람, 他人이라는 뜻이 있다 사람을 알려고 하면 知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것은 所謂 親親之殺 尊賢之等은 要컨데 모두 天理이다 天이 理想的인 自然狀態라는 것을 一種의 平等狀態, 無體制的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老莊思想이고, 天이 왜 높고 땅(地)이 왜 낮은가, 그것은 天은 尊하고 地卑하기 때문이다 天이 地보다 낮다던가 天과 地가 平等한 높이라는 것은 事實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道理로서도 있을수 없는 것이다 宇宙萬物 森羅萬象모두가 이와같은 道理를 實現하고 있지 않는 것은 없다 더구나 이와 같이 道理가 잘 調和되어 곧 「節文」的으로 禮的으로 實現되어 있다고 하는데에 儒敎의 世界觀의 根本的인 特徵이 있다

(鳥田 次, 《大學 中庸》下 (朝日新聞社, 1978) p. 123.

로 삼았으니 그 뜻이 깊으다는 것이다.

다음은 《中庸》에서 引用하고 按察하고 있다. 孔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學問을 좋아하는 것은 知에 가깝고 힘써 行하는 것은 仁에 가깝고 羞恥를 아는 것은 勇에 가깝다. 이 三者를 알면 修身할 줄을 알게 되고 修身할 줄을 알면 治人할 줄을 알게 되고 治人할 줄을 알면 天下國家를 다스릴 줄을 알게 된다.」⁶¹⁾고 하셨다.

이에 晦齋는 按察하기를 學問을 좋아하면 事理에 밝아서 智에 나아갈 것이며 힘써 行하면 私를 잊어 仁에 나아갈 것이며 羞恥를 알면 懦弱함을 이르기어 勇에 나아갈 것이라고 한다. 이 三者는 모두 求하여 入德하는 일인 때문에 이 三者를 알면 能히 修身하게 된다. 「人」이라는 것은 自己에 對해서 自己以外的 他人을 널리 指稱하는 것이니 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者는 人의 總體인 天下國家를 다스릴 줄 안다. 대개 他人의 理도 自己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修身할 줄을 알면 治人할 줄을 알며 한사람의 理는 千萬人의 理이기 때문에 治人할 줄 알면 그것으로써 天下國家를 다스려도 또한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이어서 《論語》에서 引用하여 衍義하고 있다. 孔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몸이 바르면 命을 내리지 않아도 施行되고 그 몸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命을 내리더라도 좇지 않는다(不從)」⁶²⁾고 하셨다.

이를 按察하기를 윗사람이 몸을 바루어 아랫사람에게 臨하면 백성들의 觀瞻感化가 절로 그렇게 되기를 期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이며 自身이 진실로 바르지 못하면 비록 敎諭를 부지런히 하고 刑罰이 嚴하더라도 마침내 服從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다면 君主가 마땅히 힘쓸 것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하고 있다. 그리고 《孟子》의 愛人章을 引用하고 있다. 곧 「孟子가 말하기를 내가 남을 사랑했는데도 親하지 아니 하거든 그 어짐을 돌이키고 내가 남을 다스렸는데도 잘 다스려 지지 않으면 그 智慧를 돌이키고 내가 남에게 禮를 지켰는데도 대답하지 아니 하거든 公경함을 돌이킬지니라. 行함에 얻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 다 自己自身에 돌이켜 求할지니 내 몸이 바름에 天下가 돌아 온다」⁶³⁾고 하였다.

대개 君主가 化民하는 要領은 自己 몸을 바루는데 있고 몸을 바루는 要領은 또 自己 몸에 돌이켜 自治하는데 있을 뿐이다. 禹임금은 三苗가 不服한대 于羽의 舞가 있었고 湯王은 萬方의 有罪를 自己의 罪로 삼았으니 이것이 人心을 感動시켜 天下가 和平했다고 한다.

이어서 《論語》「子路問君子章」을 引用하고 있다. 「子路가 君子에 대하여 물으니 孔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을 닦으되 恭敬으로써 할지니라 하고 하시니 子路가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고 하자, 孔子님께서 몸을 닦아서 남을 편안하게 할지니라 하셨다. 子路가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고 하자, 孔子님께서 몸을 닦아서 百姓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堯舜도 그 오히려 어렵게 여긴 것이라」고 하셨다.

61) 子曰好學은 近乎知하고 力行은 平乎仁하고 知恥는 近乎勇이니라 (《中庸》第二十章)

62) 子曰 其身正이면 不令而行하고 其身不正이면 雖令不從이니라 (《論語》子路)

63) 孟子曰 愛人不親 이거든 反其仁하고 治人不治 이거든 反其智하고 禮人不答 이거든 反其敬이니라 行有不得者 이거든 皆反求諸己니 其身正而天下歸之니라 (《孟子》離婁上)

朱子是 「修己以敬」은 말은 비록 지극히 簡略하나 齊家治國, 平天下의 根本이 모두 이에 쌓였는데 子路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말을 작게 여겼으므로 이에 安人, 安百姓의 說로 告하였었다고 하고 대개 修己以敬이라 말하였으나 그 지극함을 다한다면 마음이 평온하고 氣가 和하고 靜하면 慮하고 動하면 正直하여 그 施爲한 바가 自然스럽지 않음이 없게 되어 각각 그 理에 마땅할 것이니 이로써 그 治化의 實인바 많은 百姓이 각기 그 편안함을 얻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모두 修己以敬의 一言에 根本하였으니 그 功效가 自然히 남에게 미치는 것이며 「堯舜도 오히려 어렵게 여겼다」라는 것은 이보다 더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子路를 抑制시켜 卑近한데서 反求하도록 한 것이었다. 대개 成人의 마음은 無窮하니 세상이 비록 잘 다스려 졌더라도 어찌 반드시 四海內에 과연 하나라도 그곳을 얻지 못한 것이 없는가를 알겠나. 그때문에 堯舜도 오히려 百姓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여겼던 것이니 만약 나의 다스림이 이미 滿足스럽다고 한다면 聖人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程子は 말하기를 君子는 自己 몸을 닦아서 百姓을 편안하게 하고 篤恭하여 天下가 편안하게 된다고 하였다. 다만 上下가 한결같이 恭敬하면 天地가 스스로 그 位置가 安定되고 萬物이 스스로 자라나고 氣가 和하지 않음이 없어, 麟鳳龜龍四靈이 모두 이르게 될 것이니 이는 體信達順之道(信 是實理 順 是和氣 體信 是致中 達順是致和)라는 것이다. 聰明에智가 모두 이로 말미암아 나오니(敬하면 自然히 聰明해진다)이로써 하늘을 섬기고 上帝를 祭祀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와같이 引用하여 衍義하고 스스로 按察하기를 「修己以敬」은 다스리는 바는 지극히 簡略하나 그 功效는 百姓을 편안히 하는데 까지 이른다고 하고 聖人이 天地의 位置가 安定되고 萬物이 자라나게 하는 지극한 功도 모두 이에 근본하였으니 道가 어찌 먼데 있으며 術이 어찌 많겠는가. 그때문에 堯舜의 道는 지극히 卑近하고 高遠하지 않으며 지극히 簡略하고 煩多하지 않으며 지극히 平易하고 어지럽지 않다는 것은 이를 이룬 것이라고 한다.

다음은 《孟子》에서 引用하였다 「孟子는 말하였다. 지키는 바는 簡略하나 넓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좋은 道이다 君子의 志氣은 自身을 닦아서 天下를 다스린다」⁶⁴⁾는 것이다. (孟子曰 守約而施博者善道也君子之守修其身而天下平)

張栻은 말하기를 修身하여 天下가 다스려지는 것은 지키는 것(守)은 簡略하면서도 베푸는 것(施)은 廣博한 때문이다 修身을 하면 根本이 서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家(家)이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지고 天下가 다스려지게되니 모두 그 미룬바일뿐이라고 한다. 丘濬은 스스로 按察하고 있는데 「聖人의 道는 그 지키는 것(守)은 지극히 簡略하나 그 베푸는 것(施)은 매우 廣博하니 孔子는 말씀하시기를 「修己以安百姓」이라 하시고 子思는 「篤恭而天下平」이라 하니 孟子는 「修其身而天下平」이라 하여 前後聖賢의 論이 한사람의 말과 같다는 것이다. 대개 옛 聖帝 明王이 垂衣拱手하여 힘쓰는 일이 없으며 心思와 智力을 수고하지 않아도 天下가 順治된

64) 이것은 《孟子》言近章에서 추린것이다 言近章은 다음과 같다

孟子曰 言近而指遠者 善言也 守約而施博者 善道也 君子之言也 不下帶而道存焉 이니라 君子之守는 修其身而天下平 이니라 人病은 舍其田而蠶人之田 이니 所求於人者 重 이오 而所以自任者輕 이니라

것은 다만 그 직함(守)이 간략한 뿐이다.堯임금이 위에서 德을 밝히매 萬邦이 協和하고 黎民이 惡을 변하여 善을 하게 되었으며 舜임금이 위에서 中道를 지키매 四方이 風動하고 鳳凰이 와서 춤추었으니 지키는 바(守)는 지극히 간략하나 그 功效는 深遠했던 것」이라 한다.

唐太宗이 侍臣에게 이르기를 君主가 되는 道는 반드시 모름지기 먼저 그 몸을 바를것이니 表는 바른데도 그림자(影)는 굵어지고 위에서는 다스려졌는데도 아래서는 어지러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朕이 매양 생각하건대 그 몸을 傷하게 하는것은 外物에 있지 않고 모두 嗜欲에서 말미암아 禍를 이루니 만약 滋味를 耽嗜하고 聲色을 玩悅하면 所欲이 이미 많으므로 所損도 또한 클 것이며 이미 政事에 妨害되고 또 生民을 요란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晦齋가 按察하기를 三代以下는 道學이 밝지 못하여 君臣된 者는 治道の 根本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다만 法度刑政으로 天下를 維持할 뿐이라고 하고 다만 홀로 唐太宗은 英達하여 出治의 根源이 身心에 있음을 알고 또 傷身敗德의 原因이 嗜欲에 있음을 알았으니 可히 賢明하다고 할 것이나 그 欲心を 막고 그 몸을 바를것이 마침내 옛날 聖王과 같지 못했으므로 閨門의 慙德이 있음을 免하지 못했으니 可惜한 일이라는 것이다

春秋時代는 古代와 멀지 않았던 까닭으로 詹河는 오히려 治國의 根本을 알았던 것이나 後世에는 이것을 아는者가 드물었다는 것이다. 英明한 君主는 비록 혹시 이것을 아는 者가 있었으나 또한 能히 窮理立誠하여 그 根本을 바꾸지 못했으니 이것이 天下가 多難해지고 善治가 마침내 回復되지 못한 까닭이다. 옛 聖帝明王의 世代는 비록 멀어졌다 하더라도 그 爲治의 規와 出治의 要를 求한다면 方策에 昭詳히 記載되어 있으며 하늘이 人間에게 賦與한 것도 또한 古今과 다름이 없으니 뜻있는 君主는 진실로 能히 學問을 講明하고 道를 밝히고 몸을 바꾸고 德을 닦는데 힘을 기울여 物欲의 沈溺한 바가 되지 않고 氣習의 遷移한바가 되지 않아서 하늘이 나에게 賦與한 이치를 다한다면 저들이 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者는 感化되어 興起하지 않는이가 없을 것이니 옛 泰平盛代의 政治를 어찌 오늘에 다시 볼 수 없겠는가⁶⁵⁾고 하고있다.

IV 結 論

위에서도 보았거니와 《中庸九經衍義》에 관해서는 「옛부터 聖賢이 治道를 말한 것은 《大學》보다 詳細한 것이 없었고 「九經」보다 要緊한 것이 없었는데 眞西山은 그전에 《大學衍義》를 지었고 晦齋는 뒤에 와서 《九經衍義》를 지었으므로 天下國家를 다스리는 道가 크게 갖추어져 남김 없이 發揮되었다」고 일컬어 왔다

晦齋은 「中庸九經」의 순서가 대개 虞書 皋陶謨의 「愼厥身修思永惇叙九族庶民勳翼邇可遠」에 근본하고 있다고 하고 九經에 대해서는 《中庸》에 孔子가 魯나라 哀公에게 「爲政之道」를 告하

65) 《中庸九經衍義》卷之二, 唐太宗條

면서 마침내 天下國家를 다스리는 條目에까지 미치게 되었으니 이른바 九經이 이것이라는 것이다.

《中庸》의 「九經」은 根本에서 말미암아 末에 미치고 가까운 데로 말미암아 먼 데에 미치어 대개 大學의 八條目과 서로 表裏가 되어 帝王의 政治하는 規模는 갖추어 졌으나 《大學》은 學者에게 修己治人의 道를 가르친 때문에 進德修業하는 데에는 詳細하였으나 政治하는 條目에는 簡略하였으며 《中庸》의 「九經」은 君主에게 政治하는 道를告한 까닭으로 政治하는 條目에는 詳細하여도 修己의 공부에는 簡略하였다고 보았다.

이 《中庸》의 「九經」의 「先聖垂訓」의 奧旨를 推明하고 《大學衍義》와 《大學衍義補》의 精要를 擇하여 經世의 法을 具備코저 하였다 물론 이것을 聖明에 드리고자 한 것이나 그것은 體制上의 問題이고 實은 爲民, 爲國의 思想이라는 것은 明若한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中庸九經衍義》는 《大學衍義》와 《大學衍義補》를 參考로 하고 先聖의 訓에 근본하고 諸賢의 論과 諸史百氏의 說을 參攷하여 先生이 敷衍하여 著述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先生이 敷衍한 것도 聖訓에 增加한 것은 아니고 先聖의 뜻(意)에 한 것이지 先生의 私意로 杜撰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先聖의 訓과 방대한 賢傳과 諸史百氏의 說에서 取捨選擇한 것은 先生의 學問과 德을 말미암는 것으로 先生의 政治思想이 드러나 있다

晦齋의 政治思想의 內容은 本論에 미루거니와 크게 말해서 道學政治思想 乃至 聖學政治思想이다. 思想의 特色은 道學政治思想의 實踐性 乃至 實用性이 顯著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道學政治思想이나 儒教自體가 實踐性이 特徵이지만 先生의 思想이 보다 그러하다고 생각된다